

2019

정책연구 2019-2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연구진 이성재 · 장성화 · 한국환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9-2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연 구 진

연구책임 이 성 재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 성 화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한 국 환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18JU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내용	7
제2장 농촌중심지 개념 및 사업 현황	9
1. 농촌중심지의 개념과 정책	11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황	19
제3장 전북 농촌중심지사업 추진 실태	27
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구	29
2. 중심지 및 배후마을 현황	33
3. 주요 사업 및 사업비	39
제4장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현황 및 사례 검토	53
1.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현황	55
2. 문제점 및 과제 도출	62
3. 관련 사례 검토 및 시사점	67
제5장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활성화 방안	75
1. 주요 분야별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77
2. 추진 단계별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9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9
1. 결론	101
2. 정책제언	106
참고문헌	113

표 목 차

Contents

〈표 1-1〉 전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황	4
〈표 2-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정책 변화	18
〈표 2-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정책 변화	24
〈표 2-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실적	25
〈표 2-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실적(시도별)	26
〈표 2-5〉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26
〈표 3-1〉 시군별 · 유형별 사업현황(총괄)	29
〈표 3-2〉 시군별 · 유형별 사업현황	30
〈표 3-3〉 유형별 · 연도별 사업현황	30
〈표 3-4〉 중심지 1 · 2계층 및 사업지구 현황	31
〈표 3-5〉 농촌중심지의 공간적 범위	33
〈표 3-6〉 중심지 및 배후마을 규모	34
〈표 3-7〉 중심지 및 배후마을 인구	35
〈표 3-8〉 중심지 및 배후마을 인구 비율	36
〈표 3-9〉 배후마을의 사업구역 내 중심지 서비스 이용주	38
〈표 3-10〉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	39
〈표 3-11〉 지역경관 개선 사업	42
〈표 3-12〉 지역역량 강화 사업	45
〈표 3-1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 내용	48
〈표 3-14〉 재원별 사업비	49
〈표 3-15〉 분야별 사업비	50
〈표 3-16〉 유형별·분야별 사업비	51
〈표 3-17〉 인구 규모별 사업비	52

〈표 4-1〉 중심지와 배후마을 계획 현황자료	60
〈표 4-2〉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 특징	61
〈표 5-1〉 주요 분야별 연계 강화 방안	91
〈표 5-2〉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규사업성 검토 지표(2020년)	94
〈표 5-3〉 추진 단계별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97
〈표 6-1〉 타 부처 연계사업(예시)	111

■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공간적 범위	7
〈그림 1-2〉 연구수행 체계	8
〈그림 2-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개소	25
〈그림 2-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25
〈그림 3-1〉 전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현황	29
〈그림 3-2〉 중심지 1·2계층 및 사업추진 지구	32
〈그림 3-3〉 중심지 및 배후마을 인구 비교	35
〈그림 3-4〉 중심지마을 연령대별 인구비율	37
〈그림 3-5〉 배후마을 연령대별 인구비율	37
〈그림 3-6〉 분야별 사업비	50
〈그림 5-1〉 진안읍 배후마을 연계 공간구상	96

1

장

연구의 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 중심기능 쇠퇴, 지역활력 저하, 인구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농촌지역의 인구 비중은 '70년 58.8%에서 '00년 20.3%, '15년 18.4%로 감소함에 따라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상업, 교육, 복지 등의 중심지 기능이 쇠퇴하고 이는 지역활력 저하로 이어져 인구유출 등 인구감소를 야기시키고 있음
- 정부는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 지역과 거점면 등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농촌중심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소도읍개발사업(1990~2001) : 1,443개 소도읍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대, 지역중심 기능 강화(사화문화경제행정 등)
 - 소도읍육성사업(2003~2012) : 194개 읍지역을 중심으로 사화문화경제적 거점육성 및 특성화
 -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2007~2012) : 거점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중심지기능 정비 및 정주서비스 기능 확충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2012~2014) : 일반농산어촌지역(120개)의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중심지의 거점 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확충(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 지역경관, 지역역량)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2015~현재) : 일반농산어촌지역(120개)의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중심지의 사화문화경제적 특성 강화를 통한 중심지 기능 강화 및 배후마을 서비스 연계
 - * 농촌중심지활성화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 2015년부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지역의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배후마을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연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중심성 분석을 통해 중심지 체계상 1~2 계층에 해당하는 읍면과 해당 시군 읍면 소재지 인구규모가 상위 3순위 이내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은 농촌의 사회문화경제적 발전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지구로, 중심성이 낮은 읍면 지역은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지구로 이원화시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 2017년부터는 기존에 추진하던 일반지구 및 선도지구 외에 통합지구를 신설하여 확대 추진함
 - 통합지구의 경우 사업비를 120억 원으로 확대하고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개발 촉진
- 2019년부터 추진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3계층 체계를 일원화하고 총 사업비 한도 확대 및 배후마을 연계 서비스 의무화 등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함
 - 일반지구, 선도지구, 통합지구 유형을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한도를 기본 150억 원으로 상향하고, 시군청 소재 읍 지역과 타 중심지 연계시 추가 30억 원 지원, 지역개발 전담 지원부서 설치시 10억 원 추가 지원,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시 추가 50억 원 지원 등 사업비 한도 대폭 확대
 - 특히, 총 사업비 중 최소 10% 이상을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전담 프로그램으로 계획구성토록 의무화하여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연계 강화
- 2015년부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 2,685억 원임
- 전라북도는 13개 시군에서 총 55개 사업(348,875백만 원)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377개소 대비 14.6%에 해당함
 - 통합지구 2개소(36,000백만 원), 선도지구 7개소(56,430백만 원), 일반지구 46개소(256,445백만 원)

〈표 1-1〉 전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황

구분	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55	4	3	4	5	2	3	7	5	5	4	3	5	5
통합	2							1	1					
선도	7	1		1	1			1		1	1		1	
일반	46	3	3	3	4	2	3	5	4	4	3	3	4	5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ise.go.kr)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실제 중심지에 해당하는 마을 보다는 배후마을의 범위가 훨씬 넓고 거주 인구 또한 많지만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임
 - 중심지에 거주하는 인구는 배후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배후마을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배후마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
 - 또한, 배후마을의 법정리 수는 중심지 보다 5배 이상 많고, 배후마을 전체 면적은 중심지 면적의 약 7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록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지만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부터 사업의 성과 공유 등에 이르기까지 배후마을은 중요한 요소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주요 목적은 중심지 기능 강화와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는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중심지와 배후마을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이 요구됨
 -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 중심의 문화복지 시설, 주차장 등 생활환경시설, 간판정비, 중심 가로 및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등과 같은 사업이 중심지에 집중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배후마을을 고려한 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은 매우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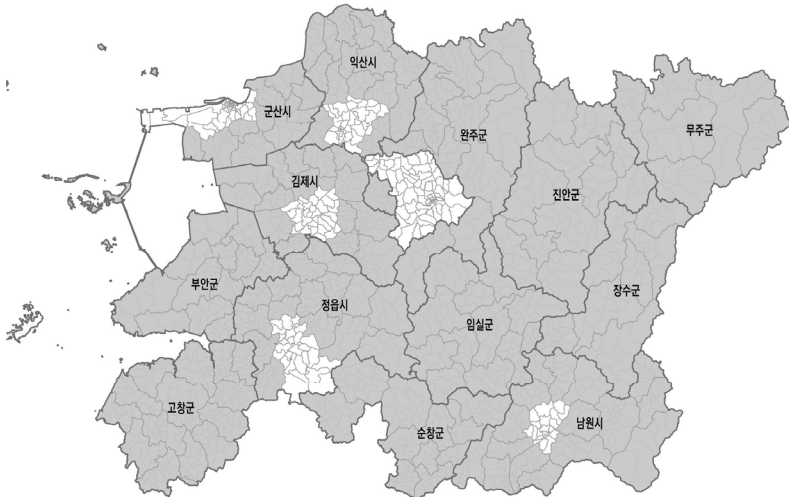
2) 연구 목적

- 중심지는 거점 및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물의 집적을 유도하여 컴팩트한 공간구조를 지향하고, 배후마을은 중심지 기능 및 서비스의 이용과 활용을 촉진하는 접근 필요
-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대상으로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현황 분석, 문제점 및 과제 도출, 국내 우수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배후마을과의 연계 개발 등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현재 대부분의 사업 추진지구에서 중심지에 기능과 시설이 집중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농촌중심지 기능강화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심지에 집중되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배후마을과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에 중점을 둠

2.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15년~2018년 추진 사업 조사 및 검토
- 공간적 범위 : 13개 시군(전주시 제외) 농촌지역(읍면)
 -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M1(읍면 소재지 내 중심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2~3개 행정리)과 M2(읍면 행정구역 내 M1을 제외한 기타 행정리)를 기준으로 설정
- 내용적 범위 :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연계 현황, 사례 검토, 활성화 방안 등



〈그림 1-1〉 공간적 범위

2) 연구 주요내용

□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현황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현황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정책변화, 전라북도 13개 시군별 추진현황(사업내용, 예산 등)
-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현황 및 과제 도출

- 전북에서 추진 중인 55개 사업(기본계획 및 예비계획)의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사업 및 프로그램 검토
- 배후마을과 연계의 문제점, 특성 및 요인 분석, 개선 과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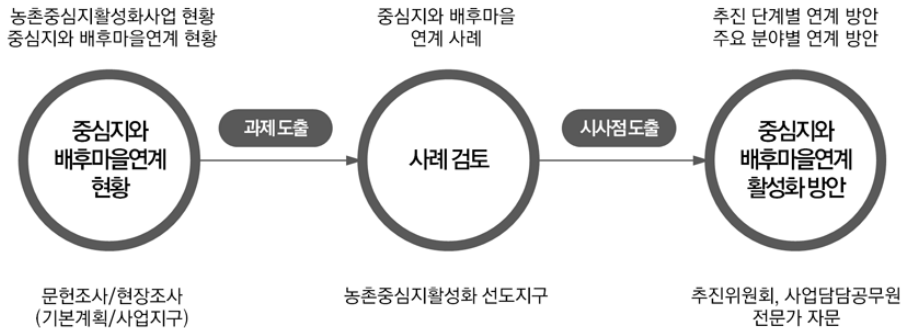
□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사례

- 국내 사례 분석 : 전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국내 유사사례 중 우수사례 분석
- 시사점 도출 : 전라북도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활성화 방안

- 추진단계별 연계 방안 : 추진위원회 선정단계, 신규사업 선정단계, 계획 수립단계 등 단계별 배후마을과의 연계 방안 제시
- 주요 분야별 연계 방안 : 농업, 문화관광, 교통, 의료복지, 경관생태, 공동체 등 주요 분야별 배후마을과의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방안 제시

3) 연구수행 체계



〈그림 1-2〉 연구수행 체계

2

장

농촌중심지 개념 및 사업 현황

Jeonbuk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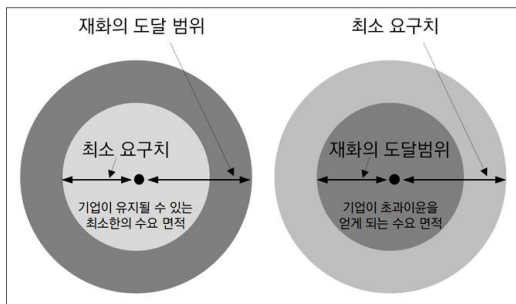
-
1. 농촌중심지의 개념과 정책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황

1. 농촌중심지 개념 및 정책

1) 농촌중심지 개념

□ 이론적 개념

- 중심지 이론은 1933년 독일의 크리스탈러(Christaller)가 독일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발전시킨 도시 분포와 계층체계에 관한 이론으로부터 출발함
- 크리스탈러가 정의한 '중심지(central place)'란 "배후지역에 대해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간 교환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장소"임
 - 크리스탈러에 따르면 중심지 기능이란 배후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이러한 기능을 갖춘 공간을 중심지라고 하며, 그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을 배후지라고 정의함(네이버 지식백과)
- 전통적으로 자기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 등 중심기능을 공급하고 남은 잉여분을 배후지역(hinterland)에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함
- 중심기능의 1차 충족 및 잉여분의 제공 측면에서 살펴볼 때 중심기능은 중심성, 최소요구치, 중심기능의 도달범위 등으로 설명됨
 - 중심성(centrality) : 일정 중심 지점이 지니는 의미의 과잉분이며, 중심지 외부에 거주하는 배후지역이 중심지에 이끌리는 견인력을 의미
 - 최소요구치(임계치) :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로, 중심지 기능의 차이에 따라 최소 요구치의 규모가 다르게 나타남
 - 재화나 서비스 등 중심기능의 도달범위 :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교통비와 구입가격이 증가하여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을 의미함
 - 중심지 계층과 포섭원리 : 배후지역에서 요구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



하여 각각의 재화와 서비스는 각기 다른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범위를 지니고 있으며, 중심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중심지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남

- 중심지 이론은 특정 공간에서 중심지의 입지와 분포, 배후지역간의 기라관계 등과 같은 공간구조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며, 중심성의 크기에 따라 계층적 구조가 다르게 나타남
 - 중심성이 큰 기능을 지닌 중심지는 고차(higher order) 중심지가 되며, 중심성이 작은 중심지는 저차(lower order) 중심지로 분류
- 일반적인 중심지 이론은 공간의 계층적 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서비스 전달 등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지니고 추진되는 사업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중심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함
- 농촌중심지의 이론적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농촌중심지의 정의, 기능, 유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초기에는 행정구역 단위와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최근들어 중심지와 배후지역을 고려한 생활서비스 등과 같은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 홍영기(1977), 최양부정철모(1984) 등은 농촌중심지체계를 행정구역과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이동훈(2000)은 모든 사람이 동일 수준으로 이용할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주요 기능은 3차 서비스 산업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며, 농촌정주생활권에서 배후 농촌지역을 가지며 중심역할을 하는 공간을 소도읍이라고 정의함
- 농촌중심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시기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도입된 후 지역생활권의 기능 분담에서 출발함
 - 송미령 등(2008)에 따르면, 농촌중심지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으로서 기초생활권 정책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공간으로 분류하여 거점지역으로서 역할을 부각함
- 농촌중심지에 대한 개념 및 공간적 범위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정책적 추진배경, 사업목적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 정책적 개념

-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서 출발한 농촌중심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생활서비스 중심의 3계층을 구분함
 - 지역생활권을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로 연계되는 3계층으로 기능 분담
 - 중심도시는 고차서비스를 담당하고, 농어촌중심지(읍면)는 복합서비스, 인근마을은 기초생활서비스 담당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2013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추진될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읍·면소재지 중에서 주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일상생활서비스의 공급 중심지 및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정의함(농림축산식품부, 2014)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개발지원단은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읍면 소재지 중에서 주민들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비롯한 행정·금융·교육·문화·복지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해당 중심지와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및 지역공동체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2017)

- 농촌중심지의 정책적 개념은 1980년대 시작된 소도읍 가꾸기 사업부터 최근 추진중인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의 변천에 따라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농식품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과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주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 및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활동의 거점역할을 하는 곳으로 정의함

□ 농촌중심지의 기능 및 특징

- 중심지 이론에 따른 중심지의 공간적 범위는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범위에 근거하여 설정되나 배후마을로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농촌중심지의 개념은 접근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음
- 농촌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배후마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행정, 금융, 상업,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이 집적된 지역이 농촌중심지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읍면 소재지에 서비스 기능이 집적된 2~3개의 행정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농촌중심지의 정책적 개념을 고려한 주요 기능은 중심기능, 거점기능, 결절기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중심기능은 주변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점으로서의 중심지 역할과 농촌공동체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 거점기능은 농촌중심지와 주변 배후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6차산업, 사회서비스업 등의 활성화 거점으로서의 역할 증대
 - 결절기능은 도시 ~ 읍면 소재지 ~ 배후지역 계층에서 도시지역과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도농교류 결절기능 증대
- 농촌 중심지의 특징은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물들을 집적화시켜 컴팩트한 공간구조를 만들어가고, 주변 배후마을과 프로그램 전달 및 공유 등을 통해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읍면 소재지를 거점으로 하는 농촌 중심지에 문화, 복지, 의료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분산되는 형태를 지양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시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들의 편의성 제고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콤팩트한 공간구조 형성
- 중심지에 집적된 시설물의 기능과 프로그램들이 인접 배후마을에 효율적으로 공급되어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효율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

2) 농촌중심지 정책 변화

□ 1970년대 : 도움 가꾸기

- 농촌중심지와 관련된 정책은 1970년대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도움가꾸기에서 출발했으며, 생활권의 거점 조성을 목표로 가로정비 및 상가정비 등 기초환경정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함
- 건설부는 1971년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소도읍 도시계획기준 및 원단위”에 관한 연구를 수행케 하고, 이를 토대로 1974년 “면급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면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이 가능케 되었으며, 이 때부터 소도읍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시작¹⁾

□ 1980년대 : 소도읍 가꾸기

- 1980년대에는 지역개발의 거점 조성 과 준 도시로서의 기능 향상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아래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소도읍 가꾸기를 추진했으며, 기초환경정비 사업 외에 생산유통시설을 포함하여 추진
- 1960년대 이후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나타난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도시집중,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 도시화 문제가 대두되어 정주생활권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읍면 소재지 중 총 844개 지역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

1) 충남연구원, 2014, 농촌중심지 육성 및 정비사업의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전략 연구

□ 1990년대 : 소도읍개발사업

- 1980년대 이후 면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도서종합개발 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도입됨
- 1980년대 추진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1990년부터 소도읍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읍면 소재지를 배후지역에 대한 행정·경제·사회·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대, 도농간 개발격차 완화 등을 목표로 환경정비, 생산유통시설, 도시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함
 - 읍면 소재지 533개 지역에서 소도읍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정주생활권 기반을 확충하는데 주력

□ 2000년대 : 소도읍육성사업 →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 2000년대에는 읍 지역을 지역의 거점 육성하고, 지역 특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했으며, 도시 인프라 확충 외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함
 - 읍 소재지 124개 지역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계획의 내용에 근거하여 국비와 도비를 일괄 지원하는 일종의 포괄보조를 지향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에 노력한 시기
 - 사업이 초기에는 국비 지원 50%, 지방비 매칭 50%로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이후 재원확보, 감사원 결과 등으로 '08년부터는 총 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규모로 축소되어 추진
- 2007년부터는 기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거점면소재지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편의시설, 문화복지시설, 경관개선, 상권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함
 - 면 소재지 중 8개면에서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읍 소재지 중심에서 면 소재지로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고 면 지역의 중심지 기능 정비와 정주서비스 확충에 주력

□ 2010년대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2010년부터 도입된 포괄보조금제도²⁾와 기초생활권정책에 따라 농촌 개발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편입되었으며, 중점 사업은 기초 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임
 - 포괄보조금 도입에 따라 균특사업 중 농촌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4개 정책분야 내 24개 포괄보조사업군 중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
- 농촌 중심지 관련 사업으로는 120개 일반농산어촌지역의 읍면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추진
 -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기 추진중인 사업들은 완료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소도읍육성사업,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이 혼재되어 추진
- 2015년부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역의 경제·사회, 문화복지 등의 발전 거점과 기초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 기 추진된 사업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읍면소재지 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 외에 중심지와 배후마을과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측면 강조

2) 포괄보조금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성 증가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지방정부가 사업 운영에 따른 재량을 지니고 광범위하게 정의된 포괄적 기능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공식에 따라 분배되는 제도(송미령, 2011)

〈표 2-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정책 변화

구분	소도읍가꾸기 (1977~1989)	소도읍개발사업 (1990~2001)	소도읍육성사업 (2003~2012)
목표	거점생활권 형성	지역중심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대	지역거점 육성 지역 특성화전문화
대상	1,443개 읍면소재지	1,443개 읍면소재지	194개 읍지역
실적	844개 읍면소재지	533개 읍면소재지	124개 읍지역
사업	환경정비 생산유통시설	환경정비, 생산유통시설 지역 인프라 확충	지역특화산업 및 시설현대화 지역 인프라 확충, 관광활성화
구분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 (2007~2012)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2012~201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015~현재)
목표	중심지기능정비 정주서비스기능 확충	소재지 거점 확충 기초서비스 기능 강화	중심지 기능 강화 배후마을 서비스 연계 강화
대상	거점면소재지	120개 일반농산어촌지역(읍면)	120개 일반농산어촌지역(읍면)
실적	23개면 소재지		
사업	생활편의, 문화복지 경관개선, 상권활성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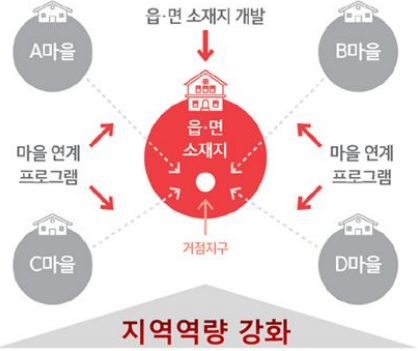
자료 : 송미령 외(2008), 김정연(2014)의 내용 수정보완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황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주요개념

- 과거 소도읍육성사업이나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을 통해 읍면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해 노력함
- 그러나 사업이 농촌중심지 체계상의 위계 및 기능과 관련성이 낮고 도로 및 시가지 정비 등 H/W 중심 추진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음
- 농촌중심지활성화는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특성을 살려 테마와 경쟁력을 갖춘 도농통합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함
 - * 농촌중심지 :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읍면소재지 중에서 주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일상생활서비스의 공급 중심지 및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
 - * 농촌중심지 활성화 : 농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 규모의 농촌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

기존 읍면소재지 개발	배후마을 연계 중심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공간 체계상 위계 및 기능과 무관하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 추진 · 사업의 효과 확산,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에 있어 효과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마을 수요를 고려하여 중심지에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배후마을과의 네트워크 구축 ·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을 강화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 삶의 질 향상 · 하드웨어 확충과 소프트웨어 활성화 추구

자료 : 중심지활성화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 농림축산식품부, 2017

□ 기본 방향

- 농촌주민 생활수요의 원활한 충족
 -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생활서비스 수요 충족, 생활서비스의 공급 중심지 및 전달 결절(node)로서의 기능 강화
- 농촌 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새로운 경제활력 창출
 - 농업 생산 중심에서 6차 산업화, 로컬푸드 등 다각화, 농업 외 2·3차 산업 기반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 농촌 공동체 활동 거점기능의 강화
 - 커뮤니티시설 등 공동체 활동 거점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 고유자원의 보전 및 활용
 - 역사문화경관 및 인적자원 기반의 지역문화 활성화 및 장소마케팅 촉진, 도농교류의 매개, 농촌체험휴양 네트워크의 거점

- 파트너십 구축과 지역사회 역량 형성
 - 민관협력형 파트너십과 자치에 의한 지역활성화 추진,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

□ 추진전략

- 농촌중심지 생활 서비스 기능 집중·복합·연계 개발
 - 중심지 기능 확충: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중심지로서의 읍·면소재지의 기능·역할을 강화
-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활성화
 - 배후마을을 고려한 프로그램: 배후 농촌주민의 활용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중심지-마을 연계 프로그램: 농촌중심지에 집적된 인적자본, 설비, 프로그램 등을 주변 농촌마을에 전달
- 농촌중심지와 농촌마을간 접근성 개선
 - 농촌중심지-배후 농촌마을간 교통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수요대응형 서비스 지원
- 농촌경제활동 다각화 및 도농순환형 경제 시스템 정착
 - 찾아가는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업 활성화, 로컬푸드 등 도농순환경제의 결절기능 강화

□ 추진 절차

- 사업신청 : 시군에서 신규사업 신청양식 작성 후 사업신청 및 관련 공문 발송(시군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 시도 검토 : 시군 사업의 신규사업성 검토 후 결과 공문발송(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 부처 사전검토 : 신규사업에 대해 중복성,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등 신규사업성 검토(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 부처 사업성 검토 : 대면검토, 현장검토, 종합검토 등(농식품부, 산림청)

- 차년도 예산신청 : 사업성 검토 승인 완료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신청(시군 → 시도 →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정책 변화

- 2015년부터 시작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중심지 기능 강화와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되었으며, 대상 지역, 사업내용, 지원예산 등의 정책이 변화

□ 2015년~2016년 : 선도·일반 지구

- 2015년부터 시작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 중심지의 기능 활성화와 중심지로부터 배후마을로 서비스 제공을 핵심 기능으로 설정하고 추진되었으며, 2016년까지 이원화된 형태로 추진함
- 해당 시군 내 읍면의 중심지 체계 분석에 따라 선도지구와 일반지구로 이원화시켜 사업을 추진함
 - 중심지 체계상 1~2계층에 해당하는 읍면과 읍면소재지 인구 규모가 상위 3순위 이내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은 선도지구로 구분하고, 총 사업비 80억 원(국비 70%)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시도별 2~3개 지구 선정
 - 중심성이 낮은 기타 면 지역은 일반지구로 구분하고, 총 사업비 60억 원(국비 70%)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시군별 1개소 선정
 - 동(洞) 지역은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중심지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

□ 2017년~2018년 : 통합선도·일반 지구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선도지구 및 일반지구 외에 통합지구를 신설하여 추진함
- 선도지구 및 일반지구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나 통합지구는 중심지 기능 활성화와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외에 배후마을 연계 개발이 추가되었으며, 총 사업비를 120억 원(국비 70%)으로 증액

- 선도지구와 일반지구는 중심지의 교육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에 중점
- 통합지구는 해당 시군 중심지 체계상 1~2 계층의 농촌 중심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읍면 소재지 내 중심지 외에 배후마을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17년 시범사업으로 2개소 내외 추진

□ 2019년 이후 : 일원화

- 2019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들이 너무 복잡하고 시군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유형을 통합하여 추진함
 - 2018년까지 추진된 3계층(통합지구, 선도지구, 일반지구) 체계를 일원화하여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유형을 통합하고 사업 대상지는 해당 시군 중심지 체계상 1, 2계층의 농촌중심지로 한정
- 총사업비 한도를 소재지의 중심성, 사용내용 등에 따라 150억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비 한도 대폭 확대함
 - 기본적으로 150억 원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시군청 소재 읍이거나, 다른 중심지와 연계 사업(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경우 30억 원 한도 증액, 농촌 지역개발 전담 부서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자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 중인 시군은 사업비 한도 10억 원 증액, 배후마을과 연계하여 주거정비 사업(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추진하는 경우 한도를 50억 원 추가 증액
- 중심지와 배후마을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배후마을에 대한 사업비 배정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함
 - 총 사업비 중 일정 비율(최소 10% 이상)을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으로 계획구성하도록 의무화
 -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구입하는 커뮤니티 버스 운영 목적의 일반 차량 구입 허용 등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사업 범위를 확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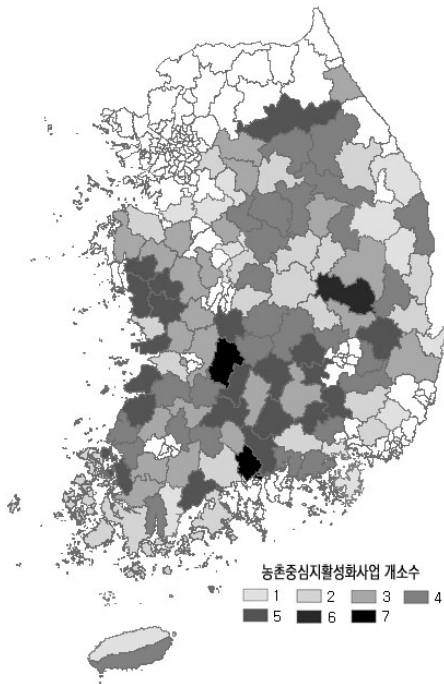
〈표 2-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정책 변화

구분	2015년 ~ 2016년		2017년 ~ 2018년			2019년 ~
유형	일반지구	선도지구	일반지구	선도지구	통합지구	일원화
기간	5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예산	60억	80억	60억	80억	120억	150억+ α
대상	읍면	중심지 1~2계층 인구 3순위 읍면	읍면	중심지 1~2계층 인구 3순위 읍면		중심지 1~2계층 읍면
사업 내용	중심지기능 활성화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중심지기능 활성화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중심지기능 활성화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배후마을 연계 개발		중심지기능 활성화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배후마을 연계 개발 배후마을 10%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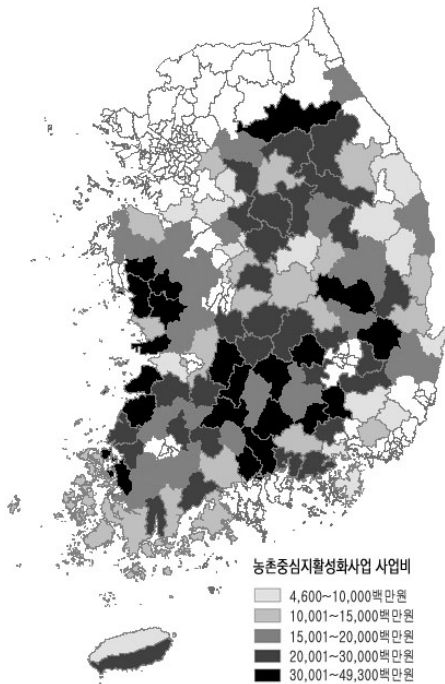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ise.go.kr)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침 재정리

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현황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통합지구 4개소, 선도지구 62개소, 일반지구 311개소 등 총 377개소임
 - 사업 시작년도인 2015년도는 선도지구 15개소, 일반지구 64개소 선정·추진
 - 2016년도는 선도지구 20개소, 일반지구 81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 2017년도는 선도지구 17개소, 일반지구 80개소, 통합지구 1개소 선정·추진
 - 2018년도는 선도지구 10개소, 일반지구 85개소, 통합지구 3개소 선정·추진



〈그림 2-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개소



〈그림 2-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외(2018)

〈표 2-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실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선도지구	15	20	17	10	62
일반지구	64	81	80	86	311
통합지구	-	-	1	3	4
합계	79	101	98	99	377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ise.go.kr)

주 : 사업계획년도 기준

- 시도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은 경북이 75개소로 가장 많고, 전남 65개소, 전북 55개소, 충남 45개소, 충북 38개소 순임

〈표 2-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실적(시도별)

구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	11	25	38	45	55	65	75	55	5	377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ise.go.kr)

주 : 사업계획년도 기준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사업비 측면에서 보면(착공년도 기준) 2015년 이후 총 2조 2,684.9억원이 투입됨
 - 선도지구에는 총 4,747억 원, 일반지구에는 1조 7,459억 원, 통합지구에는 478억 원이 투입
 - 사업개소 당 사업비를 보면 선도지구는 평균 77.8억 원(한도 80억), 일반지구는 57.2억 원(한도 60억), 통합지구는 119.6억 원(한도 120억)을 사업비로 사용

〈표 2-5〉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단위 :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선도지구	46.9	1,580.4	2,159.7	960.4	4,747.4
일반지구	1,012.6	4,673.0	5,452.2	6,321.5	17,459.3
통합지구			115.0	363.2	478.2
합계	1,059.5	6,253.4	7,726.9	7,645.1	22,684.9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ise.go.kr)

주 : 착공년도 기준

- 시군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광양시, 진안군이 7개소로 가장 많았고, 의성군이 6개소, 거창군 고령군 고창군군산시 등 총 21개 군에서 5개소 등을 수행

3

장

전북 농촌중심지사업 추진 실태

-
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구
 2. 중심지 및 배후마을 현황
 3. 주요 사업 및 사업비

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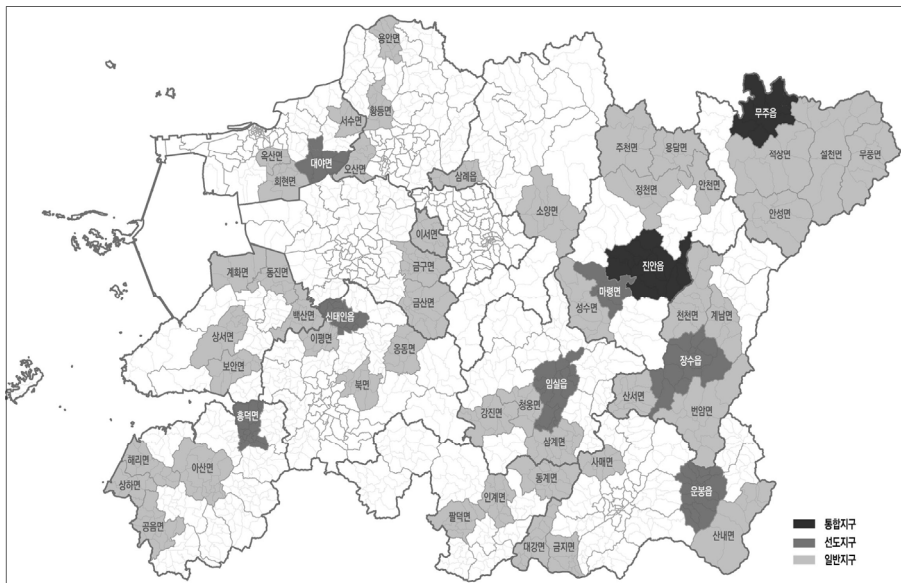
□ 시군별·유형별 추진 현황

- 2015년부터 전북에서 추진('19년 선정 사업 포함)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총 55개 사업 추진 중
 - 시군별로는 진안군이 7개소로 가장 많고, 남원사무주군·장수군·고창군·부안군이 5개소, 군산사정읍·사임실군 4개소 순
 - 유형별로는 통합지구 2개소, 선도지구 7개소, 일반지구 46개소 추진 중

〈표 3-1〉 시군별·유형별 사업현황(총괄)

구분	합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55	4	3	4	5	2	3	7	5	5	4	3	5	5
통합	2							1	1					
선도	7	1		1	1			1		1	1		1	
일반	46	3	3	3	4	2	3	5	4	4	3	3	4	5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8)



〈그림 3-1〉 전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현황

〈표 3-2〉 시군별·유형별 사업현황

구 분	합계	통합지구	선도지구	일반지구
합 계	55	2개 읍	7개 읍면	46개 면(전체 159개 읍면)
군산시	4		대야면	회현면, 서수면, 옥산면
익산시	3			오산면, 용안면, 황등면
정읍시	4		신태인읍	북면, 옹동면, 이평면
남원시	5		운봉읍	대강면, 사매면, 산내면, 금지면
김제시	2			금구면, 금산면
완주군	3			삼례읍, 소양면, 이서면
진안군	7	진안읍	마령면	안천면, 용담면, 주천면, 정천면, 성수면
무주군	5	무주읍		무풍면, 적상면, 설천면, 안성면
장수군	5		장수읍	천천면, 계남면, 산서면, 번암면
임실군	4		임실읍	강진면, 청용면, 삼계면
순창군	3			인계면, 팔덕면, 동계면
고창군	5		흥덕면	해리면, 아산면, 공음면, 상하면
부안군	5			동진면, 상서면, 보안면, 백산면, 계화면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8)

□ 연도별·유형별 추진 현황

- 사업이 시작된 2015년에는 선도지구 2개소를 포함하여 10개소를 추진한 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큰 폭의 사업개편이 이루어진 2019년도는 사업신청이 저조한 실정임
- 기존 3개로 구분된 사업유형이 통합지구로 단일화되고, 사업선정 대상 범위를 중심지 1~2 계층으로 한정, 소규모 사업인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도입 등이 주요 원인

〈표 3-3〉 연도별·유형별 사업현황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55	10	12	14	18	1
통합	2			1		1
선도	7	2	2	2	1	
일반	46	8	10	11	17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8)

주 : 사업선정년도 기준

□ 사업추진 가능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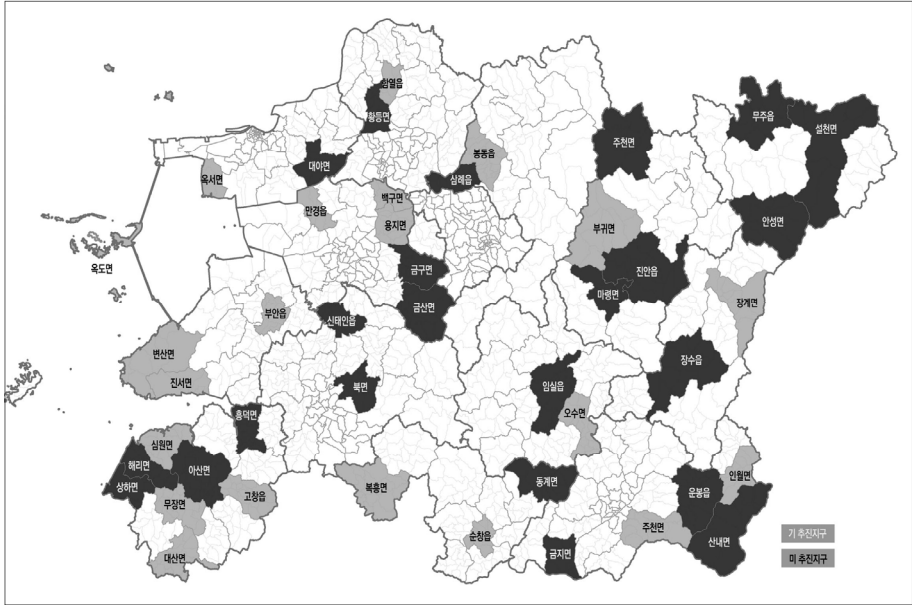
- 2019년부터 추진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대상 지역은 중심지 1~2 계층에 한정(해당 읍면 중 인구 3순위 지역 제외)
- 전북 시군의 총 읍면 수는 159개이며, 이 중 중심지 1~2계층에 해당하는 읍면은 44개 지역
- 2019년 기준 43개 읍면 중 22개 읍면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읍면소재지정비 사업 등 기존 사업 완료 후 21개 읍면*이 신규로 신청 가능

* 함열읍, 만경읍, 봉동읍, 순창읍, 고창읍, 부안읍 등 6개 읍과 15개 면(10개 시군)

〈표 3-4〉 중심지 1·2계층 및 사업지구 현황

구 분	중심지 1·2계층		
	합계	기 추진지역	미 추진지역
합 계	43	22	21
군산시	3	대야면	옥서면, 옥도면
익산시	2	황등면	함열읍
정읍시	2	신태인읍, 북면	
남원시	5	운봉읍, 산내면, 금지면	인월면, 주천면
김제시	5	금구면, 금산면	만경읍, 백구면, 용지면
완주군	2	삼례읍	봉동읍
진안군	3	진안읍, 마령면	부귀면
무주군	3	무주읍, 설천면, 안성면	
장수군	2	장수읍	장계면
임실군	2	임실읍	오수면
순창군	3	동계면	순창읍, 복흥면
고창군	8	아산면, 흥덕면, 해리면, 상하면	고창읍, 심원면, 무장면, 대신면
부안군	3		부안읍, 변산면, 진서면

자료 : 전라북도 사업지구별 예비기본 계획보고서 재정리



〈그림 3-2〉 중심지 1·2계층 및 사업추진 가능 지구

2. 중심지 및 배후마을 현황

□ 농촌중심지 공간적 범위

- 일반적으로 중심지는 재화나 서비스 등 중심기능의 도달범위를 고려하고 있지만 정책적 목적하에 추진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의 농촌중심지는 행정, 금융, 상업, 교육, 문화 등과 관련된 서비스 시설 및 기능이 집적된 곳을 의미함
- 전북에서 추진중인 55개 사업지구의 예비기본계획서를 기초로 중심지를 구분해보면 읍면 소재지에 위치한 평균 1.53개의 마을이 농촌중심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중심지의 범위가 법정리 1개소인 사업지구는 32개소이며, 법정리 2개소인 사업지구는 17개소, 법정리 3개소인 사업지구는 6개소로 법정리 1~2개소 마을은 전체 사업지구의 89.1%

〈표 3-5〉 농촌중심지의 공간적 범위

(단위 : 개소, %)

구 분	계	법정리 1개소	법정리 2개소	법정리 3개소	평균
사업지구	55	32	17	6	1.53
비율	100.0	58.2	30.9	10.9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8)

□ 중심지 및 배후마을 규모

- 전라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구의 중심지 마을의 평균 면적은 689ha, 배후마을의 평균 면적은 4,859ha이며, 배후마을의 면적이 중심지의 약 7배임
- 중심지 마을의 법정리는 평균 1.53개인 반면, 배후마을의 법정리는 평균 7.86개로 배후마을의 법정리 수가 중심지의 5배 이상임
- 중심지에 비해 배후마을의 면적이 크고, 법정리가 많기 때문에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시 물리적 연계 외에 기능적 연계가 고려되어야 함

〈표 3-6〉 중심지 및 배후마을 규모

(단위 : ha, 개소)

구 분	중심지마을		배후마을		비율 (b/a)
	면적 (a)	법정리	면적 (b)	법정리	
평 균	689	1.53	4,859	7.86	7.0
군산시	921	2.00	2,007	4.50	2.2
익산시	538	1.67	2,390	7.33	4.4
정읍시	348	1.50	3,332	8.25	9.6
남원시	685	1.60	4,991	9.60	7.3
김제시	173	1.50	5,409	11.50	31.3
완주군	553	1.33	4,652	7.33	8.4
진안군	1,138	1.43	5,487	5.43	4.8
무주군	1,196	1.40	8,989	6.20	7.5
장수군	727	1.60	8,958	7.00	20.5
임실군	422	1.50	4,756	10.50	11.3
순창군	464	1.33	3,951	7.33	8.5
고창군	486	1.60	4,207	11.40	8.6
부안군	556	1.40	3,430	5.80	6.2

자료 : 전라북도 사업지구별 예비기본 계획, 시군통계연보, 농지공간포털

주 : 면적은 평균값

□ 중심지 및 배후마을 인구

- 전라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구의 중심지 마을의 평균 인구는 2,145명, 배후마을의 평균 인구는 3,169명으로 배후마을 전체의 평균 인구가 중심지 마을보다 1.5배 많게 나타남
 - 진안군과 임실군은 중심지 마을의 평균 인구가 배후마을보다 많으나, 기타 시군에서는 배후마을의 평균 인구가 높음
 - 특히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 등은 배후마을의 평균 인구가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배후마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

- 연령계층에 따른 평균 인구규모는 15세 미만의 경우 중심지와 배후마을 인구가 유사하나 65세 이상은 배후마을의 평균 인구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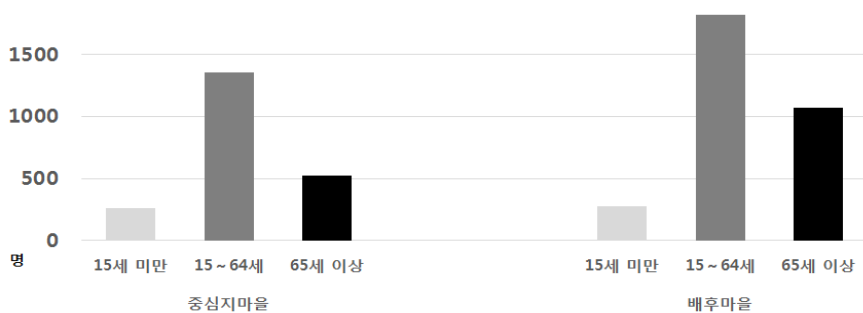
〈표 3-7〉 중심지 및 배후마을 인구

(단위 : 명)

구 분	중심지마을				배후마을				비율 (b/a)
	인구 (a)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인구 (b)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평 균	2,145	264	1,355	526	3,169	277	1,821	1,070	1.5
군산시	1,530	142	927	461	1,961	175	1,096	690	1.3
익산시	1,915	190	1,227	497	4,360	531	2,737	1,093	2.3
정읍시	1,432	161	881	390	1,961	116	1,037	809	1.4
남원시	583	63	314	205	1,619	108	847	664	2.8
김제시	963	100	594	270	3,590	206	2,092	1,292	3.7
완주군	4,948	500	3,645	803	7,326	1,045	4,884	1,397	1.5
진안군	1,187	156	690	341	1,122	85	614	423	0.9
무주군	10,505	1,475	6,447	2,583	10,762	781	5,982	3,999	1.0
장수군	1,601	289	952	359	2,064	175	1,137	751	1.3
임실군	1,477	239	928	310	1,221	76	613	533	0.8
순창군	370	31	198	141	1,226	98	614	515	3.3
고창군	674	45	420	208	2,011	118	1,027	867	3.0
부안군	706	45	389	272	1,968	90	998	880	2.8

자료 : 전라북도 과소화정책지도 연구, 임승현 외(2018)

주 :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총 인구 및 연령별 인구는 평균 값



〈그림 3-3〉 중심지 및 배후마을 인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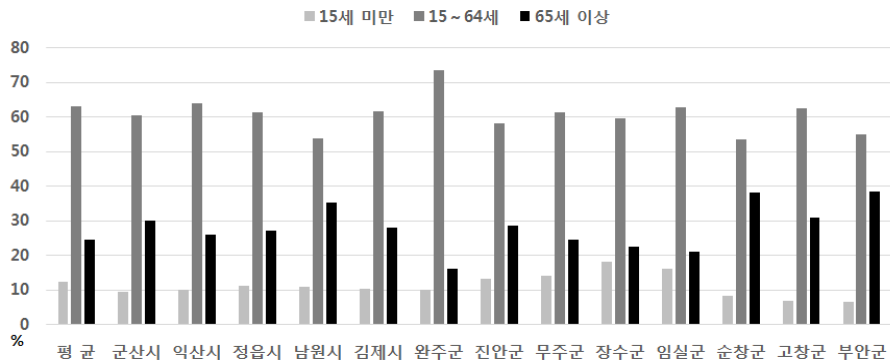
- 연령계층에 따른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15세 미만과 15세~64세의 경우 중심지 마을이 배후마을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배후마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중심지 마을의 15세 미만, 15세~64세, 65세 이상 비율은 각각 12.3%, 63.2%, 24.5%인 반면, 배후마을은 각각 8.7%, 57.5%, 33.8%로 노인계층에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정읍시 등은 중심지 마을의 15세 미만과 15세~64세 인구 비율이 배후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배후마을의 비율이 중심지 마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 인구구조 양극화가 심한 지역임

〈표 3-8〉 중심지 및 배후마을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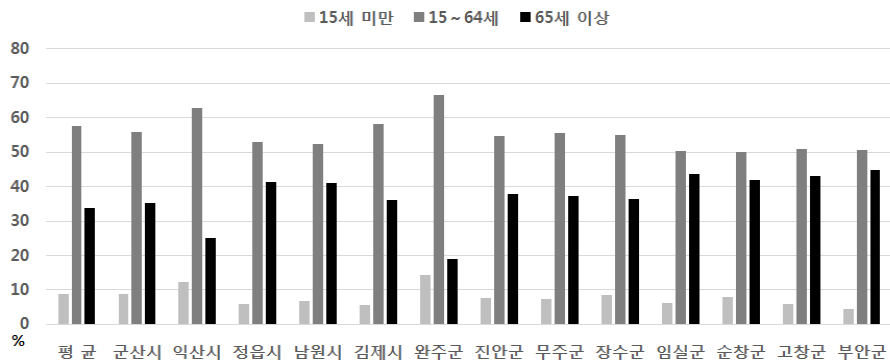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중심지마을				배후마을			
	인구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인구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평 균	2,145	12.3	63.2	24.5	3,169	8.7	57.5	33.8
군산시	1,530	9.3	60.6	30.1	1,961	8.9	55.9	35.2
익산시	1,915	9.9	64.1	26.0	4,360	12.2	62.8	25.1
정읍시	1,432	11.2	61.5	27.2	1,961	5.9	52.8	41.2
남원시	583	10.9	53.9	35.2	1,619	6.7	52.3	41.0
김제시	963	10.3	61.7	28.0	3,590	5.7	58.3	36.0
완주군	4,948	10.1	73.7	16.2	7,326	14.3	66.7	19.1
진안군	1,187	13.1	58.1	28.7	1,122	7.6	54.7	37.7
무주군	10,505	14.0	61.4	24.6	10,762	7.3	55.6	37.2
장수군	1,601	18.1	59.5	22.4	2,064	8.5	55.1	36.4
임실군	1,477	16.1	62.8	21.0	1,221	6.2	50.2	43.7
순창군	370	8.3	53.6	38.1	1,226	8.0	50.1	42.0
고창군	674	6.7	62.4	30.9	2,011	5.9	51.0	43.1
부안군	706	6.4	55.1	38.6	1,968	4.6	50.7	44.7

자료 : 전라북도 과소화정책지도 연구, 임승현 외(2018), 재정리



〈그림 3-4〉 중심지마을 연령대별 인구비율



〈그림 3-5〉 배후마을 연령대별 인구비율

□ 배후마을의 중심지 서비스 이용

- 배후마을에서 중심지의 서비스 이용 현황은 예비기본 계획서(승인기준)에서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분석함
 - 배후마을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기초생활서비스로 의식(衣食)과 관련된 소비활동, 생필품 구입, 금융업무, 동아리 등 여가활동, 외식, 진찰 및 진료 등과 관련된 이용행태를 분석
- 배후마을에서 사업지구 내 중심지에 위치한 서비스 기능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55개 사업지구 내 30개 지구로 분석됨

- 배후마을의 공간적 입지가 사업구역 내 중심지와 근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사업 구역 내 중심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근 읍면 중심지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원거리인 경우
- 사업구역 내 배후마을과 중심지의 거리가 비교적 원거리이지만 사업구역 내 중심지의 서비스 기능이 인근 읍면의 중심지보다 고차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배후마을 주민들의 생활서비스가 사업구역 내 중심지와 인접한 읍면의 중심지로 분산되거나 인접 읍면 중심지로의 의존도가 높아 사업구역 내 중심지 이용이 적은 경우는 25개 지구로 분석됨
- 배후마을의 공간적 입지가 사업구역 내 중심지보다 인접 읍면 중심지와 근거리인 경우
- 사업구역 내 중심지의 서비스 기능보다 인근 읍면의 중심지가 고차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행정업무 외에 상업, 문화, 복지 등의 기초생활서비스 이용이 사업구역 외 중심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구역 내 중심지에서 인위적인 서비스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발생

〈표 3-9〉 배후마을의 사업구역 내 중심지 서비스 이용

구분	개소	읍면
사업 구역 내 중심지 이용 강	30	(군산) 화현면, 서수면, 대야면, (정읍) 신태인읍, 이평면 (남원) 운봉읍, 대강면, 사매면, 산내면, (완주) 삼례읍 (진안) 진안읍, 안천면, 용담면, 주천면, 정천면 (무주)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장수) 장수읍, 천천면 (임실) 임실읍, 강진면, (순창) 동계면 (고창) 해리면, 공음면, 상하면, 흥덕면, (부안) 보안면, 계화면
사업구역 내 중심지 이용 약	25	(군산) 옥산면, (익산) 오산면, 용안면, 황등면, (정읍) 북면, 응동면 (남원) 금지면, (김제) 금구면, 금산면 (완주) 이서면, 소양면, (진안) 마령면, 성수면 (무주) 적상면, (장수) 계남면, 산서면, 번암면, (임실) 삼계면, 청운면 (순창) 인계면, 팔덕면, (고창) 아산면, (부안) 백산면, 상서면, 동진면

주 : 전북 55개 사업지구의 예비기본계획서에서 분석된 현황자료를 토대로 정리
 중심지 이용이 강한 경우는 일반적인 생활서비스를 중심지에서 이용하는 경우이며,
 중심지 이용이 약한 경우는 행정과 금융 이외의 문화, 복지, 의료 등의 서비스가 사업구역 내 중심지에서 이용이 적은 경우

3. 주요사업 및 사업비

1) 농촌중심지활성화 주요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의 내용은 크게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로 구분되며, 사업지구에 따른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기반 확충

-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은 지역의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물 건립과 마을정비 및 교통서비스 확충 등에 집중됨

〈표 3-10〉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

시군	사업지구	세부 내용	비고
군산시	회현면	너나들이 쉼터 조성,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공용 주차장 조성, 소통의 광장 조성, 통학로 정비, 버스 승강장 정비	일반
	서수면	무궁화문화복지센터, 구구팔팔센터, 청소년 드림센터	일반
	대야면	추억드락, 해피타운	선도
	옥산면	힐빙센터, ICT융복합, 숲속 교육장	일반
익산시	오산면	늘찬문화복지센터, 늘찬마당	일반
	용안면	어울림 센터 및 힐링마당 조성, 무학산 둘레길 조성	일반
	황등면	황등시장 주차장 조성, 고향역 문화센터 조성	일반
정읍시	신태인읍	일월미(米)인관 건립(증축), 백년문화관조성(리모델링), 백년 문화거리 및 쉼터 조성, 상가 간판정비, 고령자 안전지킴이, 재난 안전시스템	선도
	북면	행복마루관 신축, 생기총전소 증축, 고샅길 정비, 북면 알리미(전광판), 지능형방범시스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일반
	웅동면	전통문화생활관 리모델링, 미래농업교류센터 조성	일반
	이평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이평쉼터 조성	일반

남원시	대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마을회관 리모델링,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일반
	사매면	사매 종합복지센터, 혼불 교육문화센터, 중심지 교류마당, 경로당 친환경 에너지 보급	일반
	산내면	살래 문화센터, 청소년 아동센터, 게이트볼장 정비, CCTV설치, 귀농의 집	일반
	금지면	금지누리센터 및 공공서비스공간, 전원생활 체험의 집	일반
	운봉읍	하늘아래 운봉마루, 사랑썩 작은목욕탕 정비, 운봉 서림공원 정비	선도
김제시	금구면	문화센터, 쉼터 등	일반
	금산면	문화·복지센터(2층), 원평시장진입로 확충, 할머니 마켓, 주차장	일반
완주군	소양면	생생소양 아동·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커뮤니티활성화센터 조성	일반
	이서면	면사무소 증축 및 내부개선, 문화쉼터, 주차장 신설, 생태놀이터, 생태쉼터, 썸지쉼터, 디자인쉼터, 안전난간설치	일반
	삼례읍	삼례다락방, 삼례 문화예술촌 청춘공작소, 삼례로 양식마차	일반
진안군	안천면	다목적센터 '용안모두가' 조성, 다목적 문화누리마당 정비, 안천버스정류터미널 조성, 망향정 리모델링	일반
	용담면	문화누리 용기마당 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교통안전환경 개선, 보행연결 목교 설치	일반
	진안읍	살통팔달센터 조성, 세모내모 조성, 상상공유소 조성, 생생농가봇 조성, 초록문화충전소 조성,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진안공용터미널 개선	통합
	주천면	복적복적 화합의 마당 조성, 복적복적 건강도서관 조성, 교통환경 취약공간 개선	일반
	정천면	참살이 문화복지거점, 안전한 정천진입부 조성	일반
	마령면	마령활력센터, 작은목욕탕 조성, 마령장터 복원, 마령뜰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버스정류장 정비	선도
	성수면	성수 스포츠공감센터	일반
무주군	무주읍	방방곡곡 반디센터, 빈점포 공간정비, 반디 열린공부방, 문화박스쿨, 녹색주거단지	통합
	무풍면	무병장수 치유센터 리모델링, 어울림 온누리관 조성, 공용주차장 및 영농폐기물 수거장 조성	일반
	적상면	오색단풍 이야기센터 조성, 체육공원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 작은 목욕탕 증축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주민편의 하하호호 사랑방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	일반
	설천면	설천문화허브센터, 남대천 친수공간 정비	일반
	안성면	안성복합어울림센터, 마을안길정비	일반

장수군	천천면	하늘내커뮤니티센터, 하늘내체육공원, 하늘내CT정류소, 하늘내 차쉼터, 장항 문화회관, 하늘내 에너지자립마을화	일반
	계남면	도농교류거점, 주민교류거점, 계층교류거점, ICT홍보전광판	일반
	장수읍	행복나눔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알림이주차장	선도
	산서면	어울림마당, 흥겨운배움터, 산서시장활성화사업, 호롱보루 추모공원, 육영당 학습공간	일반
	번암면	웰컴센터 조성, 물빛공원정비, Slow Cafe프로젝트(6개소)	일반
임실군	삼계면	민속문화전수관 리모델링, 공회당 리모델링, 구 보건지소 리모델링, 건강지킴센터, 빛트인(Between)삼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일반
	강진면	하늬 행복나루센터, 강진 맛깔시장 활성화, 왕박골 이야기동네	일반
	임실읍	해피문화복지센터, 청소년거리 조성	선도
	청웅면	청웅 이름센터, 청웅 어울림 마당, 3.1만세운동 문화쉼터, 청웅면 공영주차장, 갈담천(구고천)보행교	일반
순창군	인계면	무장애 환경조성, 헬스케어방 조성, 으랏차차 활동공간 조성, 실버품앗이관 조성, 다시청춘 귀농거점 조성	일반
	팔덕면	디딤돌 센터, 디딤돌 마당	일반
	동계면	동계가람누리길, 동계매화쉼터, 귀농귀촌택지개발, 연결도로개설, 마을방송장비	일반
고창군	해리면	해리체육센터, 주차장 조성	일반
	아산면	행복채움터 리모델링, 아산희망센터 조성, 배수시설 개선	일반
	공음면	어울림센터, 어울마당, 버스승강장조성, 작은목욕탕 리모델링, 마을방송시스템구축	일반
	상하면	상하케어센터, 시장통 사랑방, 주차장	일반
	흥덕면	하모니센터 조성,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조성	선도
부안군	동진면	동진문화·복지센터, 동진농부의 집, 영휴정 세대융합 복지공간	일반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 상생마당	일반
	보안면	다목적문화센터, 나들쉼터, 정류장	일반
	백산면	문화·복지센터, 동학마당, 주차장	일반
	계화면	어울림 문화복지센터, 오복공원, 염창산 산책로, 용화마을 주차장	일반

자료 : 전라북도 사업지구 예비기본 계획서

□ 지역경관 개선

- 지역경관 개선 사업은 중심지의 가로경관, 역사문화자원, 배후마을 연계 동선을 중심으로 산책로, 둘레길, 쉼터 조성과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간판, 안내판 정비 등에 집중됨

(표 3-11) 지역경관 개선 사업

시군	사업지구	세부 내용	비고
군산시	회현면	가로경관 정비	일반
	서수면	무궁화테마거리 조성, 소공원 조성(무궁화 공원, 상생공원), 주차장 조성	일반
	대야면	대야가로 환경정비, 대야시장 쉼터	선도
	옥산면	옥산가로 경관조성	일반
익산시	오산면	마을순환산책로 및 쉼터, 솔밭쉼터	일반
	용안면	옹안현 정비, 시가지 경관수목 식재, 마을샘물 복원, 석재조형물 및 테마간판	일반
	황등면	황등 중심테마가로 조성, 나훈아 고향역 테마가로 조성, 석재 동구숲 상징조형물	일반
정읍시	신태인읍	돌고지 공원 조성, 경관 산책로 조성	선도
	북면	행복주차장 조성, 도원향(휴식공원)조성, 삼색비단길	일반
	웅동면	참살이광장, 명품가로수길 조성	일반
	이평면	말목쉼터 조성 및 정비, 이평길 조성	일반
남원시	대강면	대강면 행복마당 조성, 사석리 고인돌쉼터 조성, 섬진로 가로경관개선, 섬진강 꽃낭구길 조성, 꽃낭구정원 조성	일반
	사매면	생태배움 안심통학길 조성, 춘향로 생태경관길 조성, 생태건강산책로 조성	일반
	산내면	상생공간정비(살래장터, 체련공원 숲정비, 살래문화센터 숲정비), 중심가로환경정비(마을이야기안내판, 보행로정비), 람천 휴양로 정비	일반
	금지면	안전한 중심지 가로, 금지문화산책로, 배수로정비	일반
	운봉읍	바래봉 축제공간 정비, 하늘아래 구름길 정비	선도
김제시	금구면	장터마당·주차장, 상권활성화거리, 산책로 등	일반
	금산면	마을지도설치, 금산진입유도사인, 금빛이야기쉼터	일반

완주군	소양면	중심가로 경관개선, 소양천 산책로 조성, 쓰레기선별장 경관개선, 자치센터 진입로 경관개선	일반
	이서면	이서로 보행환경 정비, 간판 및 입면정비, 언더패스 환경정비, 기존 언더패스 재개통, 지붕색채정비, 담장벽화	일반
	삼례읍	삼례로(중심상가)정비사업, 칠방공원 조성사업, 상생 생태통로 조성사업	일반
진안군	안천면	안천이야기가 있는 길 정비, 신지천 꽃단지 가꾸기	일반
	용담면	연결보행로 조성, 열린학교 조성, 음식거리 정비, 용(龍)담 등나무터널 조성, 제방 보행등 설치, 용담초원 만들기, 용담가족테마공원 식재정비, 진안고원 연계길 정비	일반
	진안읍	안전한 보행로 조성, 기능시설 접근인프라 개선	통합
	주천면	간판 및 입면정비, 중심지 가로경관 정비, 마을경관개선	일반
	정천면	청·정천 휴계경관거점 조성, 청·정천 통합경관개선, 청·정천 공동체 정원조성	일반
	마령면	중심지 보행환경 정비, 상가콘텐츠 정비	선도
	성수면	세대공감 마당, 들락날락 가로개선, 들락날락 공감원	일반
무주군	무주읍	보행안전 반딧길, Smart 알림이, 그린리버 무주로드	통합
	무풍면	무풍치유정원 조성, 금평천 수변치유길 조성, 무풍면 중심가로 정비, 대덕산장터 경관환경개선	일반
	적상면	마을안길 환경정비, 중심가로 경관환경, 아름다운 수변 건강길 조성	일반
	설천면	전선지중화사업, 무설로 환경정비, 설천 내음길 정비, 태권 품세의 길 정비	일반
	안성면	안성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중심가로 간판정비, 낙화놀이 테마원 조성, 단지봉 산책로 조성	일반
장수군	천천면	하늘내 돌레길, 간판/입면정비	일반
	계남면	행복길, 활력쉼터, 문화거리, 독거노인 지킴이	일반
	장수읍	장수어울림거리, 세대공감어울림터, 장수천 정비, 역사문화탐방길	선도
	산서면	안전한 보행환경, 순환산책로, 중심가로 간판 및 입면정비	일반
	번암면	요천수변 문화공원, Slow Way프로젝트(도로, 간판정비, 위험요소 개선)	일반
임실군	삼계면	충효로 가로경관 정비	일반
	강진면	옛나루 특화거리, 느티나무 마실쉼터, 강나루 생태놀이터	일반
	임실읍	시가지 가로경관정비	선도
	청웅면	중심가로 정비 및 보행로 조성	일반

순창군	인계면	중심지 경관개선, 수 치유 쉼터 조성, 다시 청춘길 조성	일반
	팔덕면	보행환경정비, 교통정온화, 정류장 환경정비, 아트워크	일반
	동계면	동계쉼터, 구송정유원지보수, 화담쉼터, 건물입면 및 간판정비	일반
고창군	해리면	상가정비, 시장정비, 가로경관개선, 쉼터조성	일반
	아산면	가로경관 개선	일반
	공음면	보행자 안전도로조성, 참나무 가로수길, 행복쉼터, 참나무쉼터	일반
	상하면	중심가로 정비, 썸지 쉼터	일반
	흥덕면	배풍산 정비, 중심가로 정비	선도
부안군	동진면	봉황산 문화숲길, 중심가로 경관정비	일반
	상서면	마을이야기길, 휴식의 걸음길	일반
	보안면	청자숨결 중심가로, 맞이넘어길 쉼터, 체련교류문화공원	일반
	백산면	지중화사업, 보행로정비, 동학테마길	일반
	계화면	온새미로길, 중심가로 숲길조성	일반

자료 : 전라북도 사업지구 예비기본 계획서

□ 지역역량 강화

- 지역역량 강화 사업은 마을 리더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컨설팅, 동아리 등의 공동체 육성, 마을홍보를 위한 활동과 정보화 사업 등에 집중됨

(표 3-12) 지역역량 강화 사업

시군	사업지구	세부 내용	비고
군산시	회현면	마을리더 양성/교육, 홍보·주민화합	일반
	서수면	주민역량강화, 문화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협력체계 구축	일반
	대야면	RCH 케어창업활성화 프로그램, 주민교육, 경영지원	선도
	옥산면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일반
익산시	오산면	주민교육, 공동체 활성화, 오산면 특화프로그램, 마을경영지원	일반
	용안면	교육 및 견학, 홍보마케팅, 정보화, 컨설팅, 운영지원	일반
	황등면	교육 및 견학, 홍보마케팅, 컨설팅, 운영지원	일반
정읍시	신태인읍	행복맞이 프로그램, 백년문화 프로그램, 경제활력 프로그램, 원격건강 관리교육, 공동체 교실 운영, 마을경영지원, 사업지원	선도
	북면	행복나눔, 리더 육성 교육, 문화 융성, 다문화 소통, 아이 돌보미, 마을문화 동아리, 상생(商生)컨설팅, 상생(商生)교육, 상생(商生)워크숍, 스타트업 프로그램, 스타트업 경진대회, 음식테마투어, 나눔의 밥상, 밥상공론, 북면안전App, 홍보마케팅, 건강 모니터링 교육, 마을경영지원, 사업지원	일반
	웅동면	교육훈련, 컨설팅, 홍보·마케팅, 운영지원	일반
	이평면	교육 및 견학,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구축, 운영지원	일반
남원시	대강면	행복중진 프로그램, 찾아가는 행복나눔미, 주민참여형 꽃낭구 프로젝트, 꽃낭구 네트워크 구축, 대강 활성화 교육 및 운영지원	일반
	사매면	사매발전 포럼, 주민청안 프로그램, 중심지 활성화 운영지원, 사매웰에이징프로그램, 혼불문화학교프로그램, 사매장터&축제프로그램	일반
	산내면	산내 활성화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구축, 산내 활성화 운영지원	일반
	금지면	지역활성화교육, 중심지활력프로그램, 지역활성화경영지원	일반
	운봉읍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	선도

김제시	금구면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등	일반
	금산면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일반
완주군	소양면	교육훈련·마을경영지원, 중심지활성화S/W, 컨설팅, 교육, 생생공동체S/W	일반
	이서면	교육 및 견학, 홍보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일반
	삼례읍	주민추진위원회 지역역량 강화사업, 마을가꾸기 주민공모사업, 마을 사무장 운영비, 주민 추진위원회 운영비	일반
진안군	안천면	돌봄 프로그램 운영, 서당인강 앱 개발 운영, 365 건강증진 생활체육 운영, 안천이야기 콘텐츠 개발, 안천원예치료사 운영, 안천삼락교실, 안천공동체 조직화, 안천 삼락축제/길거리 월장 운영	일반
	용담면	주민교육 및 견학, 운영지원, 용담활성화 프로그램	일반
	진안읍	인재육성, 공동체 활성화, 조직화 및 네트워크, 마을경영지원, PM단 운영	통합
	주천면	인재육성, 주천활성화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마을경영지원	일반
	정천면	주민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일반
	마령면	마령마을대학(경제학교 등) 디자인 워크숍, 홍보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 지원	선도
	성수면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경영지원	일반
무주군	무주읍	사회적 공동체 양성, 소셜푸드 네트워크, 반딧불 틈새시장, 면면촌문화달리버리, 마을이야기/자원발굴, 귀농귀촌반디사관학교, 정기용 Space Tour	통합
	무풍면	시설연계, 교육 및 훈련, 지역활성화, 운영지원	일반
	적상면	시설연계 프로그램, 주민 교육 및 훈련, 지역활성화 컨설팅, 운영지원	일반
	설천면	교육/견학, 홍보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일반
	안성면	주민/리더 교육, 홍보 마케팅, 컨설팅, 경영지원	일반
장수군	천천면	교육 및 견학, 홍보/컨설팅, 경영지원	일반
	계남면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	일반
	장수읍	일곱이배움학교, 희망경작발전소, 장수네트워크만들기, 운영주체역량강화	선도
	산서면	교육, 홍보 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경영지원	일반
	번암면	교육견학,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	일반

임 실 군	삼계면	활력충전프로그램, 문화충전프로그램, 행복충전프로그램, 건강지킴이프로그램, 빛트인(Between)삼계프로그램, 쾌적한삼계프로그램	일반
	강진면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	일반
	임실읍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선도
	청웅면	교육,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일반
순 창 군	인계면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지역활성화, 사업지원	일반
	팔덕면	세대별 복지프로그램, 세대공감교실, 주민자치페스티벌, 공간가꾸기프로그램, 마을활동가 양성, 창업 인큐베이팅, 선진지견학, 마을기록지기 양성, 이야기 전시회, 마을 경영지원	일반
	동계면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일반
고 창 군	해리면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일반
	아산면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구축, 마을경영지원	일반
	공음면	교육 및 견학,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일반
	상하면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경영지원	일반
	흥덕면	주민교육,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행복꾸러미사업	선도
부 안 군	동진면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경영지원	일반
	상서면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구축, 마을경영지원	일반
	보안면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경영지원	일반
	백산면	교육, 컨설팅 등	일반
	계화면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	일반

자료 : 전라북도 사업지구 예비기본 계획서

- 전북에서 추진중인 55개 사업지구의 부문별 세부사업을 고려시, 기초 생활기반확충의 경우 교통·상하수도, 재해안전, 마을정비, 문화복지시설, 휴양관광, 농업기반 등이며, 지역경관개선은 마을경관, 생태환경, 지역활성화 등, 지역역량강화는 교육·훈련, 마을홍보, 공동체 활성화 등임

〈표 3-1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 내용

구분	분야	세부 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교통 상하수도	연결도로, 도로확장,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배수조정비
	재해안전	하천정비, 옹벽, 펜스, 보행로·통학로 정비, 방범시스템, 노인안전돌보미
	마을정비	빈집 및 상가 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 조성, 마을안길정비, 친수공간정비, 친환경에너지보급
	문화복지 시설	센터(문화복지교류공동체 등), 마을회관, 마을방송시스템,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작은목욕탕, 작은박물관, 작은영화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방과후스쿨
	휴양관광	운동시설(게이트볼장, 체육관 등), 레포츠시설, 광장, 공원, 정자, 숲속교육장, 투어프로그램
	농업기반	로컬푸드, 기계화 경작로,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지역경관 개선	마을경관	마을숲, 공동체정원, 가로수길, 산책로, 돌레길 쉼터,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울타리, 마을조형물, 마을 역사문화자원(샘물 등) 복원, 지중화
	생태환경	생태공원, 생태하천정비,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지역활력	가로경관정비, 안내판설치, 간판 및 입면 정비, 재래시장정비, 터미널정비
지역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지역주민 교육훈련, 마을해설사양성, 마을리더양성, 지역활동가 양성,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국내외 선진지견학, 컨설팅, 주민청안프로그램
	마을홍보	마을신문 및 소식지 제작,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공동체	동아리활성화, 도농교류, 다문화프로그램, 지역발전포럼, 돌봄프로그램

자료 : 전라북도 사업지구 예비기본 계획서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 자원별 사업비

- 전북에서 추진(2015년~2023년)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총 사업비는 348,596백만 원으로 분석됨
 - 자원별로는 국비 243,069백만 원(69.7%), 도비 40,298백만 원(11.6%), 시군비 65,229백만 원(18.7%)으로 분석
- 시군별 사업비는 무주군, 진안군, 남원시 등 동부권 지역의 비율이 높음
 - 무주군이 47,375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진안군 46,164백만 원, 남원시 31,140백만 원, 장수군 30,504백만 원 순
- 유형별로는 통합지구가 36,000백만 원(10.3%), 선도지구 56,430백만 원(16.2%), 일반지구 256,445백만 원(73.5%)으로 분석됨

〈표 3-14〉 자원별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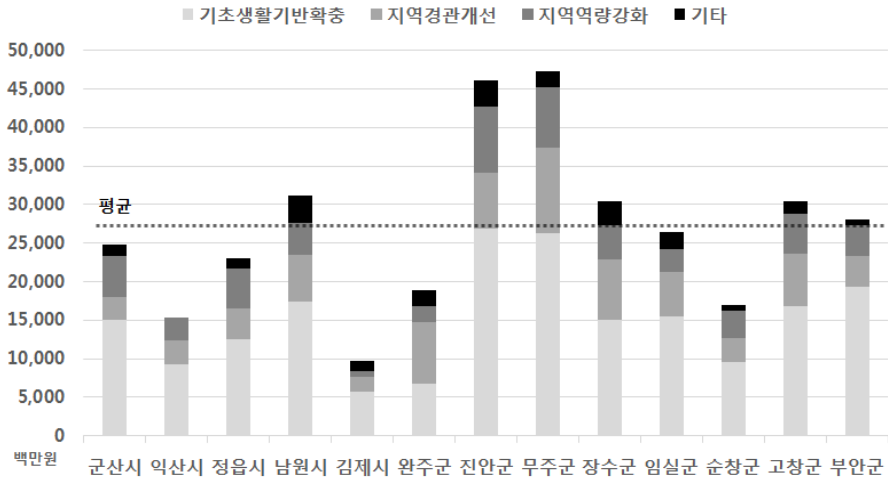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348,596	243,069	40,298	65,229
군산시	24,814	17,370	2,752	4,692
익산시	15,350	10,745	1,966	2,639
정읍시	22,989	16,092	2,948	3,949
남원시	31,140	21,798	3,606	5,736
김제시	9,665	6,766	1,241	1,658
완주군	18,871	13,210	2,396	3,265
진안군	46,164	32,314	4,980	8,870
무주군	47,375	33,163	5,005	9,207
장수군	30,504	21,353	3,466	5,685
임실군	26,374	17,502	3,237	5,635
순창군	16,967	11,877	1,745	3,345
고창군	30,381	21,277	3,555	5,549
부안군	28,002	19,602	3,401	4,999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8)

□ 분야별 사업비

- 분야별로는 기초생활기반확충 부문이 195,964백만 원(56.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경관개선이 71,947백만 원(20.6%), 지역역량강화 57,145백만 원(16.4%) 순임
- 지역경관개선 부문의 예산 비율이 높은 시군은 완주군이며, 지역역량강화 부문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은 정읍시, 군산시, 순창군, 진안군 등임



〈그림 3-6〉 분야별 사업비

〈표 3-15〉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합 계	348,596	100.0	195,964	56.2	71,947	20.6	57,145	16.4
군산시	24,814	100.0	15,080	60.8	2,973	12.0	5,218	21.0
익산시	15,350	100.0	9,260	60.3	3,139	20.4	2,951	19.2
정읍시	22,989	100.0	12,464	54.2	4,105	17.9	5,111	22.2
남원시	31,140	100.0	17,371	55.8	6,032	19.4	4,259	13.7
김제시	9,665	100.0	5,773	59.7	1,830	18.9	812	8.4
완주군	18,871	100.0	6,703	35.5	8,003	42.4	2,150	11.4

진안군	46,164	100.0	26,839	58.1	7,283	15.8	8,601	18.6
무주군	47,375	100.0	26,322	55.6	11,009	23.2	7,955	16.8
장수군	30,504	100.0	15,103	49.5	7,728	25.3	4,469	14.7
임실군	26,374	100.0	15,436	58.5	5,848	22.2	2,877	10.9
순창군	16,967	100.0	9,494	56.0	3,181	18.7	3,544	20.9
고창군	30,381	100.0	16,834	55.4	6,746	22.2	5,287	17.4
부안군	28,002	100.0	19,285	68.9	4,070	14.5	3,911	14.0

자료 : 전라북도 사업지구별 예비기본 계획(자부담 등 기타금액 제외)

□ 유형별 사업비

- 유형별로는 선도지구와 일반지구의 경우 각 부문별 예산 비율이 전체 평균과 유사하나, 통합지구는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역량강화 부문의 예산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16〉 유형별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기타	
합 계	348,596	100.0	195,964	56.2	71,947	20.6	57,145	16.4	23,540	6.8
통합지구	36,000	10.3	22,978	63.8	5,249	14.6	6,467	18.0	1,306	3.6
선도지구	56,430	16.2	30,860	54.7	11,048	19.6	9,216	16.3	5,306	9.4
일반지구	256,166	73.5	142,126	55.5	55,650	21.7	41,462	16.2	16,928	6.6

자료 : 전라북도 사업지구별 예비기본 계획

□ 인구 규모별 사업비

- 전체 55개 사업지구의 인구는 198,461명이며, 총 사업비는 348,596 백만원(5개년)으로 인구 100명당 예산은 약 176백만원 규모임
- 통합지구는 인구 100명당 약 203백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도지구는 약 176백만원, 일반지구는 약 172백만원 규모

- 인구대비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업지구는 진안군 용담면(730명)으로 인구 100명당 약 820백만원이며, 예산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지구는 완주군 이서면(14,513명)으로 인구 100명당 약 35백만원으로 2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함
- 예산이 투입되는 실질적인 공간 범위가 중심지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시 중심지 인구 100명당 예산은 완주군 삼례읍(중심지 인구 12,501명)의 경우 60백만원인 반면, 임실군 삼계면(중심지 인구 146명)은 4,050백만원으로 약 67배 차이가 발생함
- 인구규모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집행되는 단위가 읍면 행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인구규모 당 사업비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표 3-17〉 인구 규모별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통합지구	선도지구	일반지구
총 인구	198,461	17,779	32,107	148,575
총 사업비	348,596	36,000	56,430	256,166
인구 100명당 사업비 (평균)	175.6	202.5	175.8	172.4
인구 100명당 사업비 최대 (a)	819.6	274.6 (무주읍)	487.8 (마령면)	819.6 (용담면)
인구 100명당 사업비 최소 (b)	34.5	132.8 (진안읍)	117.9 (장수읍)	34.5 (이서면)
격차(a/b)	23.8	2.1	4.1	23.8

자료 : 전라북도 사업지구별 예비기본 계획

4

장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현황 및 사례 검토

Jeonbuk Institute

-
1.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현황
 2. 문제점 및 과제 도출
 3. 관련 사례 검토 및 시사점

1.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현황

-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현황은 사업이 완료된 지구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예비계획서를 중심으로 배후마을과의 연계 계획 내용과 배후마을 대상 지원 서비스를 분석함
- 2019년 2월을 기준으로 총 55개 사업 대상지 중 기본계획이 승인된 지구는 총 35개 지구이며, 기본계획이 수립중이거나 승인절차에 있는 지구는 예비계획서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총 20개 지구임
- 55개 사업지구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는 크게 문화, 의료, 경관, 교통, 정보 등으로 구분됨

1) 문화관광 부문

- 문화관광 부문 연계는 중심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자원을 활용하여 배후마을을 찾아가서 공연, 음악회, 문화교실 등을 개최하거나 배후마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 정읍 신태인읍 지구는 배후마을에 대한 문화혜택 제공 및 인적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신태인의 문화·역사 자원을 배경으로 한 주민극단 운영, 전문가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극단 조직, 매 월 배후마을을 순회하는 정기공연 실시
- 남원 금지면 지구는 이동이 불편한 노년층, 취약계층 등이 많고,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이 적은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주민자치 프로그램, 찾아가는 영화관 등) 운영

- 남원 사매면 지구는 중심지에 건립되는 혼불교육문화센터에서 추진 예정인 교육프로그램을 배후마을로 찾아가 제공(혼불 읽어주기, 경로당 문해교육, 도서배달 서비스)
- 진안 진안읍 지구는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으로 농한기 동안 배후마을의 마을회관, 노인정 등 작은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8주에 걸쳐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요가,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주민자치프로그램매과 연계 추진)
- 장수 장수읍 지구는 장수읍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한 문화누림배달부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강사로 위촉하고, 43개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모든 마을에 년 3회 문화프로그램 제공(실버노래교실, 웃음치료교실, 건강증진교실, 문화공연 등)
- 무주 무주읍 사업지구는 배후마을 주민들의 무주읍 중심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복지서비스 이용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배달부를 양성하여 기 추진 중인 경로당 활성화, 행복나눔 이동 빨래방, 산골마을 의료문화서비스 사업 연계 추진
- 임실 임실읍 사업지구는 임실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12개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과 공동체활동(전통음식 만들기, 임실치즈 만들기, 마을벽화 그리기 등 추진)

□ 배후마을 동아리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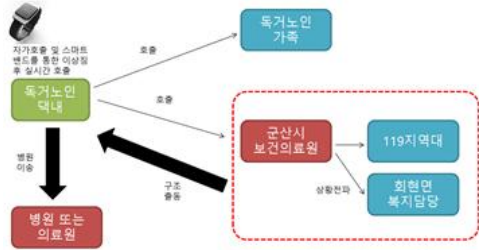
- 진안 진안읍 지구는 배후마을의 초등학생, 청·장년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독서토론 지도사 과정, 건강관리사과정,umba리스트 과정 등) 지원
- 임실 임실읍 지구는 배후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동아리활동을 신청을 받아 동아리활동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동아리방을 마련한 마을에 한해 리모델링비와 활동비, 축제 개최비 등을 지원

2) 의료·복지 부문

- 전북의 사업지구에서 추진하는 의료복지 내용은 독거노인 케어를 위한 센서 보급과 마을회관 순회 검진서비스 사업임

□ 독거노인 케어 센서 보급

- 군산 회현면 지구는 독거노인 케어를 위한 ICT 융복합 기술과 연계한 모니터링 장비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후마을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벨 설치, 독거노인 케어 센서(160세대) 설치를 통해 배후마을 독거노인의 의료서비스 지원



□ 마을회관 순회 검진서비스

- 면소재지의 중심가로에 위치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의 이용이 높았던 보건지소가 이전 후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해짐에 따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주 2회 건강체조 및 건강검진 등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요가, 노래교실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 병행

3) 경관생태 부문

- 경관생태 부문 연계는 배후마을 내 역사성 등 어메니티를 보유한 자원을 복원하거나 마을경관 개선을 위한 숲길 조성 및 마을가꾸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배후지역 마을경관 가꾸기

- 익산 용안면 지구는 배후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위치한 옛 약수터가 자연재해로 유실됨에 따라 이를 복원하여 산책로 이용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 진안 용담면 지구는 지역의 특화된 마을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용담호 주변의 배후마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마을가꾸기 운영회 추진(지역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우리마을 가꾸기 가드닝 교실 등)

□ 배후마을과 연계한 경관 조성

- 장수 장수읍 지구는 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 연계되는 지하차도 주변에 녹지축과 숲길을 조성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간의 보행동선 안전성 제고 및 산책코스로 활용

4) 교통 부문

- 교통 부문 연계는 중심지 내 서비스시설로의 접근성이 취약한 벽지·오지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제공과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시키기 위한 차량 운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지원

- 정읍 신태인 사업지구는 버스 노선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지역이나 고령으로 버스나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 중심지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택시 운영
- 고창 상하면지구는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촉진을 통해 중심지의 발전 거점 역할을 제고시키고, 배후마을 중 버스 소외불편 마을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착한버스 운영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차량 운행

- 군산 회현면 사업지구는 관내 22개 단체 및 개인 등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후원 협약을 체결하여,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차량지원(5개 종교단체)을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 전달

- 완주 소양면 사업지구는 배후마을 연계사업으로 생생공동체사업을 계획하고 중심지에 위치한 문화센터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배후마을로 전달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

5) 정보 부문

- 정보 부문 연계는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중심지에서 발신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상방송 장비 구축과 중심지에 운영되는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소식지 등의 형태로 배후마을에 제공하는 매체 제작 및 배포 사업임

□ 배후마을 영상방송 장비 구축

- 군산 옥산면 사업 지구는 낙후된 유선방송시설과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단선 등으로 인해 배후마을 주민들이 주요 안내사항에 대한 난청 지역이 많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배후마을 주민들의 신속·정확한 발신정보 청취가 가능하도록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 서비스 정보 매체 제작 및 배후마을 배포

- 진안 용담면 사업 지구는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의 소통을 확대하고 배후마을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마을소식, 문화, 행사, 마을발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마을소식지를 제작하여 월 1회 배후마을에 배포
- 부안 동진면 사업 지구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중심지에서 서비스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제작하여 배후마을에 분기별로 배포

〈표 4-1〉 중심지와 배후마을 계획 현황

구분	내용	시군	비고
문화 관광	·배후마을 청소년을 위한 편편(Fun Fun)교실 운영	익산시 오산면	일반
	·배후마을 순회 정기공연 개최	정읍시 신태인읍	선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금지면	일반
	·찾아가는 혼불문화학교 운영(문해교육, 도서배달 등)	남원시 사매면	일반
	·찾아가는 문화교실, 배후마을 동아리활동 지원	진안군 진안읍	통합
	·면면촌촌 문화달리버리	무주군 무주읍	통합
	·찾아가는 문화누림	장수군 장수읍	선도
	·배후마을 방문 음악회 진행	장수군 산서면	일반
	·찾아가는 문화예술공동체, 배후마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임실군 임실읍	선도
	·찾아가는 문화복지 교육	부안군 동진면	일반
의료 복지	·독거노인 케어를 위한 센서 보급	군산시 회현면	일반
	·마을회관 순회 노년층 치매검사, 건강검진 등	김제시 금구면	일반
경관 생태	·배후마을 산책코스 내 샘플 복원	익산시 용안면	일반
	·배후마을 취약지역 마을가꾸기(월 1회)	진안군 용담면	일반
	·배후마을 숲길 조성(관문경관)	장수군 장수읍	선도
교통	·배후마을 의료지원서비스 차량 지원	군산시 회현면	일반
	·농촌형 수요대응 택시	정읍시 신태인읍	선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셔틀버스 운영	완주군 소양면	일반
	·배후마을 대상 착한버스 운영	고창군 상하면	일반
정보	·무선방송서비스, 영상신호장비(문화복지 프로그램 공유)	군산시 옥산면	일반
	·마을소식지 제작 및 배후마을 배포	진안군 용담면	일반
	·중심지 프로그램 매체 제작 및 배후마을 배포	부안군 동진면	일반

자료 : 전라북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지구 예비계획서 및 기본계획 보고서

6) 배후마을 연계 특징

- 55개 사업지구의 추진현황 및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배후마을과의 연계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방식에 따른 유형, 서비스 연계를 위한 자원, 배후마을에 전달되는 서비스의 내용적 범위, 연계 대상 및 주요 계층 등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남
- 서비스 제공 및 이용방식에 따른 유형은 중심지의 서비스 기능을 배후마을에 전달하거나 배후마을 주민이 중심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구분됨

- 중심지의 서비스 기능을 배후마을에 전달하는 방식은 주로 배후마을을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형태이며, 중심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중심지에 위치한 복합센터 등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를 위한 자원은 하드웨어 조성(HW), 소프트웨어(SW) 연계, 휴먼웨어(HnW) 기반 연계 등으로 구분됨
 - 하드웨어 조성은 기존 시설물의 기능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또는 신축 형태이며, 소프트웨어는 문화, 복지, 의료 등 서비스 프로그램, 휴먼웨어는 주로 중심지에 거주하는 서비스 전달자 등
- 배후마을에 전달되는 서비스의 내용적 범위는 중심지의 서비스 내용과 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 전달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1차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와 중심지 또는 배후마을에 운영되는 시설이용 및 서비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남
-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 대상은 중심지의 조직과 단체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형태에 해당하는 배후마을 주민이 1차 대상이며, 배후마을과 중심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동체 등의 형태로 구분됨
-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시 고려되는 계층은 배후마을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장년, 노인 형태로 구분됨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계는 방과후 교육 및 돌봄, 중장년은 취미활동과 동호회 활동, 노년층은 돌봄, 검진, 건강교실 형태 등

〈표 4-2〉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 특징

구분	주요특징		
연계 자원	·하드웨어 (리모델링 또는 신축)	·소프트웨어 (문화, 복지 등 프로그램)	·휴먼웨어 (서비스 전달자)
연계 계층	·청소년 (방과후 교실 및 돌봄)	·중장년 (취미 및 동호회 활동)	·노인 (돌봄, 검진, 건강교실)
연계 유형	중심지 서비스 → 배후마을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중심지 서비스 ← 배후마을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내용적 범위	·1차 정보제공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연계 대상	·배후마을 주민 (서비스 공급)	·배후마을 주민 + 중심지 주민 (공동체 조직, 지역축제 등)	

2. 문제점 및 과제 도출

1) 문제점

□ 배후마을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참여 미흡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목적은 크게 중심지 기능 활성화와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업목적 중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중심지 내 관련 사업들을 집중시키려는 경향이 높음
 - 중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배후마을에 대한 고려가 없고, 배후마을 주민들은 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
- 사업의 기획 및 실행을 담당하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중심지에 거주하는 지역민으로 구성되고, 사업초기 단계부터 배후마을 주민의 참여가 부족

□ 중심지 내 핵심시설의 활용 저조

-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주민 교류 촉진 등을 목적으로 대부분 중심지 내에 거점시설(문화복지센터, 복합문화공간, 공동체센터 등)을 계획
- 반면, 거점시설에 대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접근성 고려가 미흡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 산림지역에 입지한 마을은 주요 시설들이 선(線) 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배후마을 주민들의 활용도 저하
 - 거점시설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중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많으나 배후마을 주민들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고 실제 이용률 저조
 - 또한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도 시설 노후화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핵심시설의 활용이 저조
- 배후마을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심지 내 위치한 핵심시설을 기반으로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이용하

고,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이용 거점으로 활용해야 됨

- 배후마을 주민들이 중심지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면사무소와 농협으로 행정 및 금융 외의 생활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필요

□ 주요 분야별 배후마을과의 연계 콘텐츠 부족

- 문화 서비스 부문의 연계 실태는 중심지와 배후마을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배후마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는 사업지구는 대부분 문화활동 공간이 협소함
 - 주민자치센터 내 회의실을 이용한 경우가 많아 문화활동 공간이 협소하고 야외활동을 위한 공간 부족, 야외 체육시설 이용의 계절적 한계
 - 상당수 마을에서 주로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가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해서 문화복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중심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다수 발생
-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예산지원을 통해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전달이 가능하나 사업 종료 후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문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필요
- 의료부문의 경우 서비스 공급 주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타 부문에 비해 배후마을과의 연계 정도가 미흡한 편이며, 중심지에서 운영하는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배후마을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기관 부족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중심지 내 유일한 의료시설이 대부분 내과만 진료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물리치료시설 등은 부족
 - 배후마을은 노인비율이 중심지에 비해 높으나 의료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은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의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배후마을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어려움 발생

- 일부 지역에서는 중심지의 복지 프로그램이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 이동하는 막차는 오후 7시까지 운영
- 많은 사업지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관부문의 배후마을과의 연계는 배후마을의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 등 인적자원 기반 연계가 미흡하며, 경관자원을 활용한 중심지와 배후마을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부족함
- 농업부문의 경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서 소득사업은 선도지구 이상에서만 일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 농업 분야의 배후마을과의 연계가 검토되어야 함
- 농촌지역의 특성상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가구가 많고, 특히 배후마을은 농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소득창출을 통한 운영비 충당이 필요

□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취약

- 배후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은 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 전달되는 경우와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됨
-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이동시 행정에서 교통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수요대응 택시 서비스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심지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배후마을로 전달하기 위한 차량과 인력, 예산 확보에 한계가 발생함
- 버스노선이 중심지에서 시 지역 또는 소재지(읍면)로의 운행횟수가 많아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일부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순환버스가 운행되더라도 운행횟수 제약 등으로 접근성 한계
- 특히 버스가 운행되는 도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배후마을은 고령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중심지에 접근하기에 어려운 상황

- 일부 배후마을은 중심지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지만 대부분 고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계층의 중심지와 연계된 도로정비 사업이 많아 생활권이 이탈되는 경우도 발생함
-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보행로가 협소하거나 진입도로에 불법주정차, 적치물 등으로 이동에 불편 초래 및 안전사고의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임

□ 서비스 정보의 격차 및 사각지대 발생

- 중심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배후마을 주민들의 인지도가 미흡한 현실이며, 행정 또는 각종 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 복지, 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정보에 대한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배후마을에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방송 장비를 구축하고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과 사업 종료 후 노후화 등으로 지속성에 한계도 우려됨

2) 과제도출

□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배후마을 참여 촉진 : 상향식 계획 수립

- 중심지 외에도 배후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계획수립단계부터 배후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중심지 시설 활용도 및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 거점시설 활용 제고

- 중심지에 위치한 시설들의 집적화 및 상호 연계를 통한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배후마을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공간적으로 넓게 분포된 배후마을은 중간단위의 거점을 조성하여 서비스를 수렴하고 발신하는 거점으로 활용
- **지역 내 자원 기반의 배후마을과의 연계 활성화 : 지역자원 활용**
 -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분포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 생태환경 자원, 인적자원 등 주요 자원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측면에서의 연계 활성화
- **교통수단 확대 및 안전한 환경 고려 : 중심지로의 접근성 개선**
 -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순회하는 교통수단의 확대와 배후마을로 연계되는 보행로의 안전환경 개선
- **의료복지 프로그램의 효율적 전달 체계 구축 :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중심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복지 서비스의 배후마을로의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중복·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배후마을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로의 전환 :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 중심지 거점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해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배후마을 주민들이 중심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외에 배후마을을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 확대
- **문화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제고 : 문화향유 기회 제고**
 -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공간을 확충하고, 배후마을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3. 관련 사례 검토 및 시사점

1) 경남 거창군 거창읍³⁾

□ 사업지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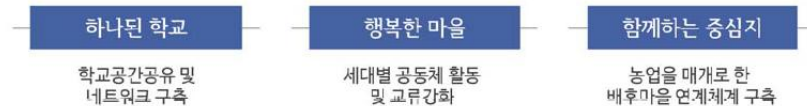
- 유형 : 선도지구(80억)
- 기준년도/목표년도 : 2015년 / 2015년~2018년(4년)
- 주요사업
 - 기초생활기반 확충 : 거창 아고라(지역 이벤트 공간), 공동체 마당, 청소년발전소 '창'
 - 지역경관 개선 : 아카데미파크웨이
 - 지역역량 강화 : 거창한 공동체 교류 활성화 기획 및 운영, 공동체 교육농업 문화 활성화 지원, 함께사는 마을 만들기 학교운영, '같이路' 캠페인 운영, 거창한 농업교실 운영, 액션네트워크 운영 및 역량강화
- 비전·목표 및 전략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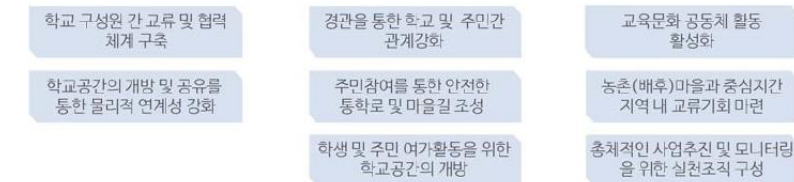
지역공동체 모두 누리는 교육·문화 중심지

아카데미파크 Academy Park

목표



추진전략



3)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거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기본계획 보고서(2016)

□ 배후마을 연계

- 사업추진 조직에 배후마을 주민의 적극적 참여
 -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학교 관계자가 말고, 부위원장에 거창읍 읍장과 배후마을 주민을 임명하여 배후마을의 의견 적극 반영
 - 사업추진조직에 학교관계자 이외에도 지역의 청소년 활동가, 문화예술인, 배후마을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배후마을 체험마을을 활용한 연계 기능 강화
 - 배후마을 내 체험마을을 활용한 텃밭체험을 운영하여 거창군 내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배후마을 방문 기회 확대
 - 배후마을 주민들이 방문 학생들에게 농업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선생님이 되어 농업의 가치 교육
- 중심지 및 배후마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
 - 중심지와 배후마을 학교에서 접근이 용이한 부지에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동아리 모임 및 운영위원회 회의 장소로 활용(청소년 발전소'창')
- 배후마을 청소년 및 청년들의 공연 지원
 - 기존 공연동아리를 중심으로 배후마을에 거주하는 청소년, 청년, 귀농귀촌인들이 참여하는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상호교류활동 촉진

2) 충남 금산군 금산읍 4)

□ 사업지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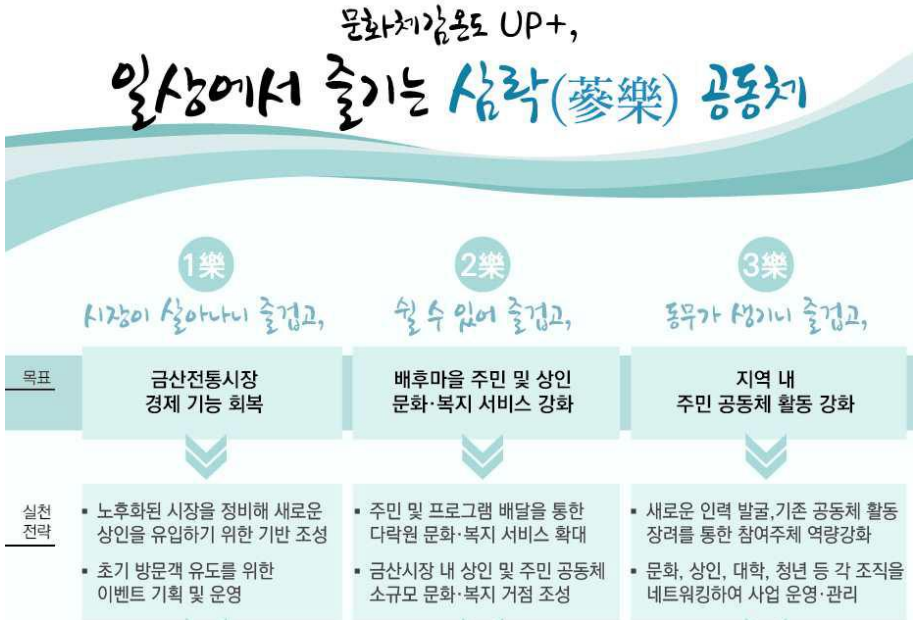
- 유형 : 선도지구(80억)
- 기준년도/목표년도 : 2015년 / 2015년~2019년(5년)
- 주요사업
 - 기초생활기반 확충 : 창업골목 조성사업, 야시장 조성사업, 영화관 및 문화다방

4)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선도지구)사업 기본계획서(2016)

조성사업, 금산상인 건강다방 조성사업

- 지역경관 개선 : 난장가로 조성사업, 옥탑텃밭 조성사업
- 지역역량 강화 : 금산시장 창업 상인 육성사업, 문화장날 운영사업, 문화배달북 양성 및 운영사업, 움직이는 다락원 운영사업, 주민참여형 시장가는길 만들기 활동, 운영주체 조직화 및 역량강화

○ 비전·목표 및 전략



□ 배후마을 연계

-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 배달강좌 시행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들이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시행

〈 배후마을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 〉

- **문화배달부 양성 및 운영** : 43곳의 배후마을 내 노인정 등에서 문화·복지 프로그램 진행
 - 금산읍→배후마을로 문화·복지 배달하는 민간인력 양성 및 운영
- **움직이는 다락원** : 배후마을 주민을 금산읍 중심지로의 접근성 강화
 - 배후마을→시장→다락원으로 배후마을 주민에게 소규모 문화교육 및 공연을 배달하는 주제버스 운영
 - 버스는 이동 수단의 기능과 함께, 꾸러미 배달부와의 연계 운영을 고려하여 일반 버스 형태가 아닌 문화 배달 버스로 차량 내/외부의 디자인을 기획하고 리모델링

- 문화·복지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배후마을 주민들이 생활서비스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읍내에 방문한 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꾸러미 서비스의 제공
 - 움직이는 다락원과 꾸러미 배달원을 통해 육성된 배후마을의 문화예술 동아리를 초대하여 동아리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아리 교류 및 공연을 개최하는 등 금산군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배후마을 주민들이 읍내 문화·복지 시설을 이용하기에 가장 불편했던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중심지 문화·복지 시설의 이용률이 증가

3) 경북 의성군 의성읍⁵⁾

□ 사업지구 개요

- 유형 : 선도지구(80억)
- 기준년도/목표년도 : 2016년 / 2016년~2020년(5년)
- 주요사업
 - 기초생활기반 확충 : 의성키움센터 조성사업
 - 지역경관 개선 : 행복배움놀이길 조성사업, 미래路 조성사업

5) 20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의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기본계획보고서(2017)

- 지역역량 강화 : 행복키움협동조직 육성사업, 교류장터 '나눔달장' 운영사업, 좋은 학부모 되기 프로그램 운영사업, 의로운 농부체험 교실 운영사업, 터줏대감 마을 탐방 프로그램 운영사업, 의성 아이사랑축제 운영사업, 청소년 경관가꾸기 프로그램 운영사업, 골목 지킴이 어르신단 운영사업, 청소년 진로체험 교실 운영사업

○ 비전·목표 및 전략

비전 Vision	<h2 style="color: #4db6ac;">아이와 어른이 함께 성장하는</h2> <h3 style="color: #4db6ac;">보육 중심지, 의성을</h3> 		
목표 Goal	보육(Care & Education)에 필요한 지역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세대 행복 증진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Strategy	나눔을 즐기다	놀이를 경험하다	내일을 꿈꾸다
	보육기반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동놀이환경 다양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환경 개선

□ 배후마을 연계

- 배후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교류하는 장터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커뮤니티 기회를 제공(교류장터 '나눔달장' 운영사업 등)
 -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교류행사를 통해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주민 스스로가 나눔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아동 문화활동 충족 및 배후마을 주민 교류활동 활성화 도모(의성 아이사랑축제)

-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관련 교육 사업(‘좋은 학부모 되기’ 프로그램)
 -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사를 모집하여 직접 마을에 찾아가 보육 관련 교육을 진행
- 배후마을의 공간을 이용한 연계기능 강화
 - 지역 내 유치원, 아동센터 및 초등학교 등 보육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이들이 농업활동 체험을 통해 배후마을의 문화와 의성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의로운 농부체험교실)
 -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사전 교육준비 시에 교육 공간의 협의 및 배후마을과의 연계학습을 계획 및 활용

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⁶⁾

□ 사업지구 개요

- 유형 : 선도지구(80억)
- 기준년도/목표년도 : 2016년 / 2016년~2019년(4년)
- 주요사업
 - 기초생활기반 확충 : 양양나들장 조성, 남대천 차량 접근성 개선
 - 지역경관 개선 : 연어가 회귀하는 공원- 어화원(魚花園) 조성 1단계, 양양로 환경 개선
 - 지역역량 강화 : 양양나들장 운영주체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한여름 황금야시장 운영, 주민참여 중심지 가꾸기, 사업 추진단 구성, 사업 추진단 워크숍, 주민 교육 및 활동 지원
- 비전·목표 및 전략

6) 20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선도지구]사업 기본계획서(2017)



□ 배후마을 연계

- 생활경제 지원거점조성을 위한 배후마을 농가상품 온라인 판로 구축
- 2011년에 오픈해 양양군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농·특산물직거래 쇼핑몰인 '양양몰'은 양양군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특산물을 위탁판매 중
- 관광서비스 지원거점 조성을 위한 배후마을 농업·관광 관련 주민조직 활용
 - 농업인은 축제 시 향토음식점 운영, 향토음식 발굴 및 개발을 하고 있는 생활개선회 등 6개 읍면 농업인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주민조직들이 있음
 - 관광관련 조직으로는 펜션협동조합, 농어촌교육체험관광협회가 있고, 그 중 펜션협동조합은 공동구매, 공동광고 등을 진행하고 있어 양양읍의 생활경제서비스와 연계함

5) 시사점

□ 배후마을 주민의 적극적 참여 기반 마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인적자원 발굴 및 활용이 중요한 과제임
 - 배후마을 주민들이 사업추진 조직에 포함되고, 계획수립 과정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마을단위 사업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 계층들을 배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특히 배후마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활동가 또는 소규모 조직 등 지역의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계획과 사업에 참여시켜야 함

□ 배후마을 주민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연계

- 배후마을 주민들의 중심지 내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배후마을 주민들이 중심지를 방문하는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연계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배후마을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해 중심지의 시설물에 의존하기 보다는 중심지의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배후마을의 시설물 또는 공간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활용도 고려되어야 함

□ 배후마을 자원을 활용한 수익 모델 고려

- 사업의 특성상 소득사업이 가능한 지구와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속성 담보 등을 위해서는 배후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농업부문의 연계를 통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배후마을의 자원 중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노동력을 중심지와 연계시켜 지역민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소득과 연계를 통한 수익 확보로 시설물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배후마을과 중심지의 상생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

-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 이용 및 전달 외에도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 간 상호 교류 및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중심지 시설 및 프로그램에 배후마을 주민들이 상시 참여하는 것 외에도 중심지 주민의 배후마을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이 중요함

5

장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활성화 방안

-
1. 주요 분야별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2. 추진 단계별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1. 주요 분야별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1) 주요 분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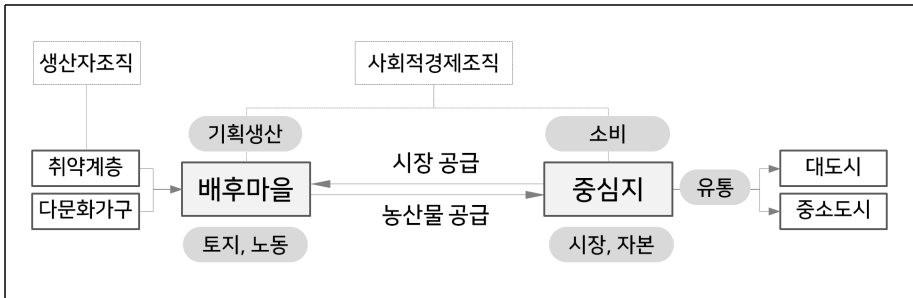
-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주요 분야 선정은 연계 대상 주체인 배후마을의 특징,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주요 사업내용, 전 북의 추진현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 주요 사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배후마을은 일반적으로 농업활동 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농업 측면에서의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연계 검토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주요 내용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문은 중심지에 조성되는 문화 및 복지시설로 배후마을주민들의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연계 검토
- 전북의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현황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과제와 전국의 우수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 의료·복지, 경관생태, 교통 부문 등의 연계 검토
 - 배후마을 주민의 참여,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연계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의료·복지 부문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계 분야
- 이 외에도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동체 분야의 연계를 검토

2) 농업 분야

□ 지역공동체 농업 시스템 구축

- 배후마을은 중심지에 비해 농업생산을 위한 토지 등 대지 여건이 양호한 반면, 소비·유통 측면에서 규모의 경쟁력이 미흡하고, 고령농가가 많아 소규모 영세농 중심의 농업 특성을 보유
- 배후마을이 보유한 토지확보의 강점과 중심지의 소비시장 측면의 강점을 활용하여 배후마을과 중심지의 연계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침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선도지구 또는 통합지구는 일부 소득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후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활동 주체들을 활용한 배후마을과의 연계 필요
- 농업생산을 위한 토지확보가 용이한 배후마을을 중심으로 기획생산 체제를 도입하고, 중심지는 배후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을 담당하는 공동체 기반 농업 시스템 구축
 - 배후마을 : 토지와 노동 제공, 생산자조직(취약계층 및 다문화가구)을 기반으로 한 기획생산으로 농산물 공급
 - 중심지 : 시장과 자본 제공, 소비를 기반으로 배후마을에 대한 시장공급과 차상위 계층의 도시와의 유통 지원



□ 배후마을과 연계한 6차산업화 육성

-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6차산업화는 농업의 생산과 가공, 유통, 체험·교육 등이 복합된 형태로 추진
- 중심지의 가공 및 유통과 연계하여 배후마을을 중심으로 농업의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육 상품 개발·운영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풍부한 배후마을의 자원을 토대로 농업 생산의 기능과 가치를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 기 조성된 배후마을의 체험마을을 활용하여 중심지의 청소년과 외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심지에 위치한 유치원, 초등학교,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현장학습, 지역 봉사활동 등과 연계 추진
- 배후마을과 연계한 6차산업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를 육성하고, 판로 개척 및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중간지원조직 육성이 중요

〈 토고미 마을: 화천군 〉

- 2002년부터 모기업과 교류를 통해 회사 워크숍과 사원가족 체험프로그램 운영
- 2004년에는 토고미마을 후원을 위한 캠페인을 마을과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우렁이(4천만원)를 기부한 기업을 배려하여 ○○기업의 날 운영을 10년 이상 지속
- 2006년부터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1교1촌 협약을 맺어 매년 4학년 학생들에게 배후마을을 방문을 통한 농촌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토고미쌀로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시행 중

□ 고향장터 운영

- 배후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심지의 시장과 자분을 활용하여 연계하는 방안 필요
- 중심지에서 형성되는 5일장 등을 활용하여 배후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온라인 판매 촉진
 - 배후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 전체를 진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배후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마을을 대표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대표 품목을 선별하여 온-오프라인 판매
- 또는 중심지에서 판매되는 배후마을의 농산물은 배후마을 주민들이 도시의 자녀들에게 보내고 남은 농산물들을 모아 판매하는 농산물이 라는 마케팅을 통해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향후 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공동작업 공간 조성

- 배후마을 주민은 노인 비율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는데, 농한기에는 대부분 일거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 농업기술센터, 관내 기업 및 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이 농한기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운영하고, 공동작업장 등의 생산·가공 기반시설 확충
- 청장년층은 중심지에 거주하는 젊은층이 중심이 되어 배후마을 주민들과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시설농업을 통한 공동작업 활성화
- 노년층은 배후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층이 중심이 되어 중심지 주민들과 지역의 특산품 또는 공예품 등을 생산하여 농한기에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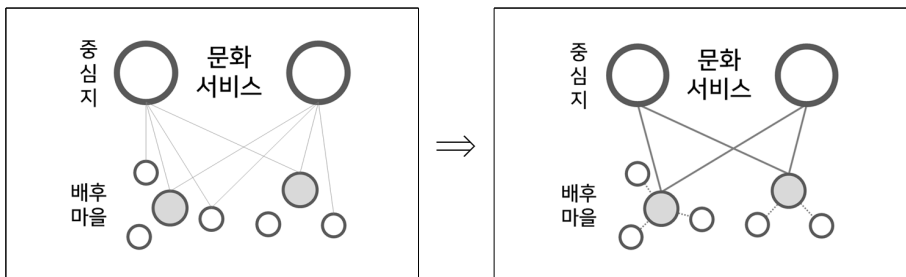
□ 커뮤니티 스쿨가든 조성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 연계를 위해서는 청소년 계층의 역할이 중요하나 계획수립 또는 사업 추진시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경향이 많음
- 농업을 매개로 한 교육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핵심 계층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위치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텃밭정원을 조성
- 학생들이 텃밭정원에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재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촉진시키고, 중심지와 배후마을 학교가 공동으로 텃밭 발표회를 개최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기존 유통망을 통해 특설 판매하여 지역간·세대간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3) 문화관광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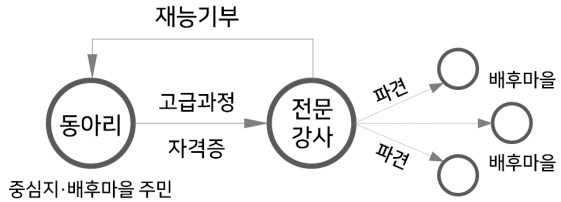
□ 배후마을 거점시설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전달

- 배후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문화서비스는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복 지원 또는 소외지역 등이 발생
- 중심지 내에서 각종 문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배후마을 전체를 방문하여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 발생
- 배후마을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배후마을들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거점마을 내 유희시설 또는 주요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서비스를 공급받는 거점시설로 활용
 - 배후마을 내 거점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등이 될 수 있으며,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문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으로 활용
 - 배후마을 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을 통해 커뮤니티센터 등이 입지하고 있는 경우는 서비스 공급 거점으로 우선 고려
- 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 문화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들은 배후마을 산간벽지 구석까지 방문하지 않고 배후마을 내 거점마을을 방문하여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산간벽지의 배후마을 주민들은 거점마을로 방문하여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동호회 강사 양성 및 파견

-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에서 강사를 영입하는 방식은 경제적 부담 외에도 지속성을 담보하는데에도 한계
- 중심지 내에서 운영하는 각종 동호회를 중심으로 고급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여 전문강사 양성
- 중심지 내 동호회 출신 전문강사가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후마을을 방문하여 문화서비스 제공시 주민 강사를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중심지 내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제공

- 배후마을에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재원확보,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비효율성 초래
- 중심지 내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도서관 등과 협약을 통해 배후마을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필요

〈 돌봄사례 : 가평군 〉

· 가평군은 공공임대주택과 업무시설이 복합된 건물 2층에 돌봄센터를 마련하여 인근 초등학교를 위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학기 중 오후 5시~8시, 방학중 오후 3시~6시)

□ 지역 내 자원 활용도 제고

- 중심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각종 문화예술 동호회가 중심이 되어 배후마을을 방문하여 공연 등의 활동을 통해 문화서비스 제공

- 배후마을 주민들이 중심지를 많이 찾는 5일장에 맞추어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제공
 - 중심지에 위치한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배후마을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
 -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지역 내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에서 기획하고,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강사를 활용
- 중심지에 조성된 야외 체육시설은 막구조 지붕 등을 설치하여 기상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

□ 관광자원을 활용한 배후마을 연계 강화

- 권역 주변의 관광객을 마을로 유인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쟁력 강화 필요
- 권역 주변의 관광거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사업구역 내 배후마을 또는 중심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 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 생태환경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시켜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광프로그램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 중심지와 배후마을과의 연계성 강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 내 역사, 인물, 특산물, 자연명소, 휴양림 등 비교우위를 확보한 자원들을 선별하여 역사기행, 식문화미각체험, 농업체험, 전통공예, 트레킹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 체험, 휴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연계 및 상품화
 - 보스톤의 레드라인(유명 관광자원을 바닥에 레드라인으로 연결)처럼 사업지구 내 방문객들이 연계해서 즐길 수 있는 공통의 테마를 라인으로 표기한 홍보매체 제작 및 활용

4) 교통 분야

□ 중심지 내 주요기관 차량을 활용한 이동편의 제고

-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는 중심지에 주요 기능과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배후마을 주민들의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중요한 과제
- 반면, 중심지에서 배후마을을 순회하는 버스를 증차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 중심지 내 복지회관 등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확대 운행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의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
- 종교단체,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 단체와 협약을 통해 배후마을 주민들이 중심지의 문화교육의료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동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
- 중심지에서 5일장이 열리는 날을 중심으로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 이동하는 행복택시 등을 운영

〈 행복택시: 임실군 〉

-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산간벽지 등 교통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도입
- 매주 월요일 읍면소재지 방문시, 읍면 5일장 개최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거리와 상관없이 회당 4인 기준 500원(2,000원/인)으로 나머지 요금은 임실군에서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병원이나 장터 방문시 이용

□ 중심지 내 자원봉사센터 차량 활용

- 시군 단위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서 자원봉사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운영하고 있음
- 반면, 자원봉사센터 차량 운행은 자원봉사 업무가 있을시에만 운행하고 있어 운행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유휴시간대가 많은 실정임

-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유한 차량을 활용하여 중심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전달하는데 활용 또는 배후마을 주민들의 중심지로의 이 동시 교통편의 제공
 - 자원봉사센터와 협약 체결을 통해 유휴시간대를 활용하고, 운전 및 유류비 등의 최소 경비 지원

〈 자원봉사센터 차량 활용 〉

- 여주시는 자원봉사센터 차량을 이용하여 자원봉사센터와 관내 봉사단체가 함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이동 목욕서비스 실시
- 제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은행이 공동으로 자원봉사센터 차량을 이용하여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가정식 백반 제공

□ 배후마을과 중심지의 보행동선 정비

- 중심지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배후마을 주민들은 중심지로의 접근 시 도보로 이동하는데 배후마을과 중심지와의 보행동선이 단절되거나 노면이 불량하여 이동에 어려움 발생
 - 배후마을의 상당수가 5일장을 위해 중심지 방문시 쉼터 및 주차공간 부족, 통행 공간 협소, 그늘 등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 제기
-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단절된 보행동선을 연계시켜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선형과 노면 불량 등으로 안전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
- 통행량이 비교적 많은 구간은 보행로 주변에 수목 및 화초, 휴게공간 등을 함께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

5) 의료·복지 분야

□ 통합거점 경로당 운영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배후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달되는 의료·복지서비스는 문화서비스 처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복 지원 또는 소외지역 등이 발생

- 중심지 내에서 각종 의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배후마을 전체를 방문하여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 발생
- 배후마을 중 기타 배후마을들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거점마을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갖춘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통해 통합거점 경로당 운영
- 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 개별적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중심지에서 통합경로당을 중심으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 한 후 서비스 사각지대에 위치한 배후마을은 통합경로당을 방문하여 서비스 수혜

□ 배후마을 행복버스 운영

- 지역 내 의료·복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봉사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의료, 문화, 예술, 법률 등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배후마을에 제공
- 2단계 사업으로 대학의 의료기관, 재능기부 단체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수혜 지역 및 프로그램 확대 추진

〈 농업인 행복버스: 농식품부 〉

·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촌 소외 지역에 문화, 법률, 의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2014부터 추진

□ 중심지 내 단종복지관의 기능 전환

- 대부분의 중심지에는 노인회관 또는 장애인회관 등이 입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복지시설 건립시 재원확보에 따른 부담 발생
-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등은 마을의 거점시설이지만 기능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활용적 측면에서 효율성 저하

-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단종복지관을 복합복지관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많은 계층의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전환 필요

□ 의료·복지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중심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배후마을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는 의료·복지 부문이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용에 한계
- 중심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복지 서비스와 중심지에서 배후마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작하여 배후마을에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와 연계한 ICT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상의 프로그램 및 시설의 정보 제공과 예약서비스 제공

6) 경관생태 분야

□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진입공간 경관 특화

-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 진입하는 공간은 마을 내 상징적인 공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 필요
- 진입공간의 불법 적치물 및 쓰레기 등으로 인한 불량경관을 정비하고, 생태 쉼터 등의 휴게·편의 시설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심미적 접근성 제고
-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 이동시 차량 중심의 가로환경은 경관을 고려한 보행로 환경 정비로 중심지와 배후마을간의 접근성 제고

□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수변·산림 자원 연계

-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걸쳐 있는 자원은 역사문화자원, 수변자원, 산림자원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자원들의 활용을 통한 연계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

- 특히 하천과 산림의 경우 중심지와 배후마을 관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변산림경관 창출에 용이
- 선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하천 제방 주변의 공간에 화초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단체 및 공동체 등에게 분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심지 내에 위치한 자연공원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숲길을 활용하여 배후마을로 이어지고 순환될 수 있는 연계 산책로를 조성하여 상징경관, 테마경관, 생태경관 창출

7) 휴먼웨어공동체 분야

□ 배후마을 재능보유자 조사 및 활용

- 배후마을은 중심지보다 거주 인구 및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능 보유자들이 많고 이들을 활용시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계 활성화 가능
- 배후마을 주민 중 문화예술, 공예, 건축, 조경 등 재능을 보유한 인적 자원을 조사하여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 기본계획 수립 전후에 추진하는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완료 후 중심지 거점시설에서 운영되는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및 복지 프로그램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민자치규약 제정 등을 통해 배후마을 재능 보유자들과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운영 기반 마련

□ 중심지와 배후마을이 함께하는 월장(月場) 개최

-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콘텐츠로 소통하는 공동체복원이 중요

-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서, 의류, 가구, 공예품, 식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임시공간을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마을 내 기술 보유자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 운영
- 부녀회, 청년회 등 특정 계층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학생, 노인 등 다양한 계층과 배후마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공간적·계층적 커뮤니티 활성화

〈 마령월장: 진안군 〉

- 과거 번성했던 진안군 마령장의 추억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가공한 식초, 꿀, 참기름 등 먹거리와 배후마을 재능보유자가 제작한 공예품 판매
- 특히 학생들이 직접 만든 쿠키, 케이크 등도 판매되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 활동가들이 만든 제품들도 전사판매되어 공동체 회복에 기여

□ 재능나눔 공동체 활동 지원

- 배후마을은 중심지에 비해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며, 특히 교육과 관련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해 교육 관련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활용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강사를 모집하여 재능나눔 공동체를 구성하고, 직접 배후마을을 찾아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연차별 모집되는 강사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배후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 또는 읍면 사무소에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서비스 수혜

〈 좋은 학부모 되기 프로그램: 의성군 〉

-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사를 모집하고, 배후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 관련 교육을 진행
- 부모와 자녀의 행복대화법, 자녀의 진로지도 방법 등 부모교육 강의와 생활요리강좌, 초컴퓨터프로그램 교육, 사물놀이, 악기연주, 비즈공예 등 학부모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활동가 조직화 및 사업지원

- 중심지 외에 배후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중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발굴하여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액션 그룹(action group)으로 조직화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획하여 지역의 공동체 역량 강화
 - 문화, 예술, 복지 등의 소규모 사업 추진을 통해 중심지의 서비스를 배후마을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경관 조성, 마을가꾸기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활동가들의 자립역량 강화
-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 지역명사화 함께하는 문화여행, 예술꽃 씨앗학교, 동(洞)동(童)동(動) 문화놀이터, 문화박스쿨 설치운영,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문화동아리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전통생활문화 활성화, 지역문예활동 지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등

〈표 5-1〉 주요 분야별 연계 강화 방안

구분	연계 강화 방안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농업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마을은 기획생산, 중심지는 소비와 유통 담당으로 연계 강화 · 배후마을과 연계한 6차사업화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의 가공 및 유통과 연계하여 배후마을 중심의 체험교육상품 운영 · 고향장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마을에서 자녀들에게 보내는 농산물들을 모아 온오프라인 판매 · 공동작업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한기에 배후마을과 중심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 및 소득 창출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커뮤니티 스쿨가든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을 매개로 한 교육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핵심 계층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위치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텃밭정원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텃밭 발표회 개최, 농산물 특선판매 등을 추진
문화 관광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마을 거점시설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마을 거점마을 내 유희시설 또는 주요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서비스를 공급받는 거점시설로 활용(규모 및 접근성 고려) · 동호회 강사 양성 및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 내에서 운영하는 각종 동호회를 중심으로 고급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여 전문강사 양성 후 배후마을 강사로 파견 · 중심지 내 공공기관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 내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도서관 등과 협약을 통해 배후마을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 · 지역 내 자원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 동호회의 배후마을 방문 서비스, 5일장에 문화서비스 제공, 중심지 내 문화시설 활용도 제고 · 관광자원을 활용한 배후마을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관광자원 연계 등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규모화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 내 주요기관 차량을 활용한 이동편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 내 복지회관 등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확대 운행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의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 - 5일장 등 배후마을 주민들이 중심지를 찾는 날에 교통서비스 제공 · 시군 자원봉사센터 차량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유한 차량을 활용하여 중심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전달하는데 활용 · 배후마을과 중심지의 보행동선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단절된 보행동선 연계, 선형과 노면 불량으로 안전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구간의 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의료 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거점 경로당 운영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마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갖춘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통해 거점 경로당으로 조성하고 의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 · 배후마을 행복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의료·복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봉사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의료, 문화, 예술, 법률 등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 · 중심지 내 단종복지관의 기능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등의 단종복지관을 복합복지관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서비스 수혜 계층 확대 · 의료·복지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복지 서비스와 중심지에서 배후마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작하여 배후마을에 배포 또는 ICT 플랫폼 구축
<p style="text-align: center;">경관 생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진입공간 경관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공간의 불량경관 정비, 생태 쉼터 등의 휴게편의 시설, 보행로 환경 정비 등으로 경관 특화공간 조성 ·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수변·산림 자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관통하는 하천 주변공간에 화초 등을 식재,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순환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지역 내 공동체에게 운영관리 위탁
<p style="text-align: center;">휴먼 웨어 공동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마을 재능보유자 조사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마을 주민 중 문화예술, 공예, 건축, 조경 등 재능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조사하여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 중심지와 배후마을이 함께하는 월장(月場)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가구의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월 단위 장을 개최하여 공간·작·계층적 통합 커뮤니티 활성화 · 재능나눔 공동체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에서 강사를 모집하여 재능나눔 공동체를 구성하고, 직접 배후마을을 찾아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지역활동가 조직화 및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를 중심으로 액션그룹을 조직화하고,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다양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

2. 추진 단계별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1)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시 일반적으로 지역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사업에 선정된 상당수 지역은 기존에 마을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많아 당시 조직했던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일부 수정·보완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 등 중심지 관련 사업 외에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마을 사업 등을 통해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기존에 마을 관련 사업 추진 경험이 없고 신규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청장년층, 노년층, 부녀회 등 계층과 단체 등을 대표하는 성격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그런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기존의 소재지 중심의 사업과는 달리 배후마을과의 연계를 통해 중심지의 서비스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농식품부는 이러한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
- 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하는 추진위원회가 중심지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조직됨에 따라 배후마을 지역에 대한 수요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추진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 배후마을 관련 사업의 10%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시 추진위원회에 배후마을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배후마을 주민의 추진위원회 참여 의무화는 배후마을 주민에 대한 사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중심지 기능 강화와 더불어 배후마을로의 원활한 서비스 전달로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모두가 서비스를 공급받아 지역 내 서비스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2) 신규 사업 선정 단계

- 예비계획서 작성을 통한 신규사업성 검토 지표에서 배후마을과 관련된 항목의 강화가 필요함
- 기존 신규사업 검토 지표는 크게 입지의 적절성, 추진의지 및 사업계획, 역량강화 및 추진체계, 기대효과 및 유지관리, 정책협조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는 추진의지 및 사업계획 지표에서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배후마을 대상사업의 구성과 연계성 및 적합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배후마을 연계와 관련된 구체성 항목이 결여되어 배후마을을 고려한 계획이 미흡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들도 관심이 저조함
- 배후마을 관련 사업의 10% 의무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존 배후마을 대상 사업의 검토시 배후마을 연계와 관련된 구체성을 검토하고, 5개 부문 중 역량강화 및 추진체계에서도 배후마을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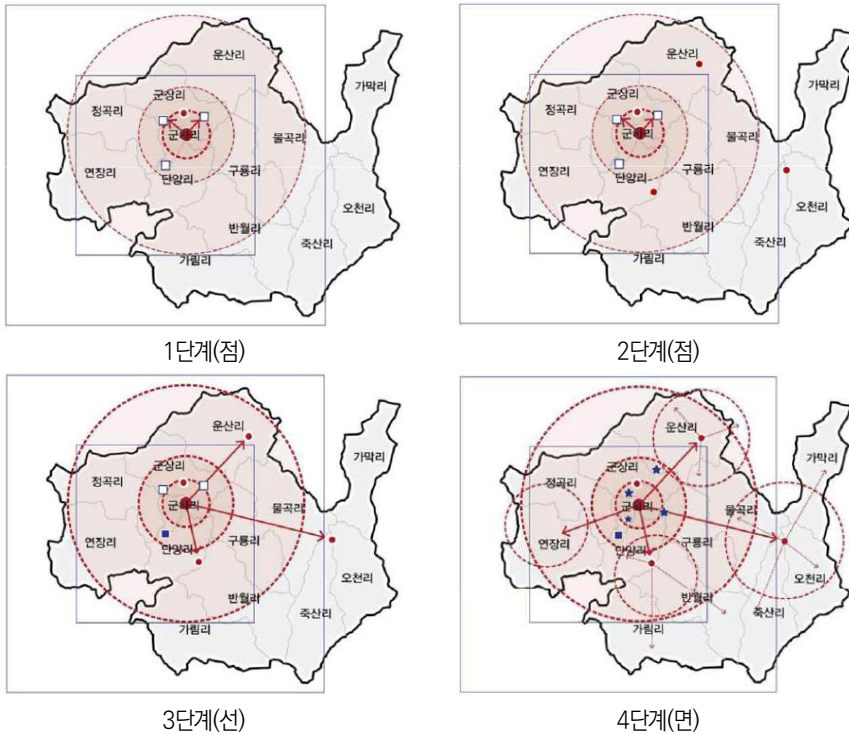
〈표 5-2〉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규사업성 검토 지표(2020년)

검토항목	주요 고려사항
입지의 적절성	· 중심성 분석 및 생활권 분석을 통한 사업대상지 적정성 ·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중심지 거점지구 설정 및 시설의 집약도
추진의지 및 사업계획	· 시장군수,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등의 사업 추진의지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읍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을 포함한 종합적 지역개발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농촌중심지 기능 확충 사업,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배후마을 대상사업 등의 구성 및 적합성
역량강화 및 추진체계	· 지역 주민과 사업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노력 ·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계 구축 및 운영 · 마을역량 진단, 발전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단계의 충실도
기대효과 및 유지관리	·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기대효과 · 사후 유지관리 등을 위한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사회적경제조직 등 운영주체의 육성 및 활용계획 포함 여부(가감점)

자료 :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 계획 수립 단계

- 계획수립은 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사업선정 후 수립하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계획, 이후 실시설계 등으로 구분되는데, 계획수립의 첫 번째 단계인 예비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한 단계임
-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비계획 수립 시 중심지는 구체적인 여건분석을 수행하지만 배후마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 면 지역의 배후마을은 중심지에 비해 인구규모 크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배후마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요소임
- 예비계획 수립 시 지역의 여건분석 과정에서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 배후마을의 생활권, 배후마을 내 분포하고 있는 자원과 시설, 배후마을의 인적역량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접근성은 배후마을과 중심지와의 연결도로 현황, 버스 등 대중교통 현황 등이 분석되어야 하며, 생활권은 상업, 교육, 문화, 여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 필요. 또한 배후마을 내 다양한 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과 인적자원에 대해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실효성 높은 연계를 기대할 수 있음
-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고려한 공간구조 설정(compact-network)을 통해 단계별로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한 후 배후마을로 연계되는 점-선-면 확대 전략 설정 필요
 - 1단계(점) : 기존 중심지의 시설 및 기능 집적을 통한 중심거점 기능 강화
 - 2단계(점) : 배후마을의 중간 거점 또는 활동거점 조성
 - 3단계(선) : 중심지와 배후마을 거점을 연결하는 고차 서비스의 프로그램 강화
 - 4단계(면) : 배후마을 기초 서비스 거점 확대



〈그림 5-1〉 진안을 배후마을 연계 공간구상

- 기본계획 수립시 실시하는 수요조사는 표본설계 단계부터 배후마을 주민수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조사결과 분석시에는 배후마을 주민들의 수요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금산군 금산읍(선도지구) 〉

- 주민설문시 배후마을 44개소의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인터뷰 실시
- 다락원-문화의 집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높은 수요에 대한 계획과제 도출
-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 방안으로 문화배달부 양성 및 운영 사업 추진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견학 또는 현장포럼을 개최하거나 계획요소를 도출 시 배후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는 지역민의 참여율이 높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민들의 참여도 낮아지며, 특히 배후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배후마을 주민의 참여가 낮을 경우 배후마을 연계를 위한 의견 반영이 어렵고, 중심지 지역민의 의견을 토대로 중심지 기능 강화에만 집중됨에 따라 기존의 소도 읍육성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없음

〈표 5-3〉 추진 단계별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구분	연계 강화 방안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회에 배후마을 주민의 참여 의무화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배후마을 관련 사업의 10% 의무화 추진)
신규 사업 선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성(예비계획서) 검토 지표에 배후마을과 관련된 항목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마을 연계와 관련된 구체성 검토 추가 - 평가지표와 관련된 5개 부문 중 역량강화 및 추진체계 지표에 배후마을 주민 참여에 대한 내용 추가
계획 수립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마을에 대한 분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마을의 생활권, 배후마을 내 분포하고 있는 자원과 시설, 배후마을의 인적역량 등에 대한 분석 · 배후마을 주민에 대한 수요조사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설계 단계부터 배후마을 주민 수를 고려하여 표본 할당 - 조사결과 분석시 배후마을 주민들의 수요에 대한 세부적 분석(교차분석 등) · 주민역량강화 활동 및 계획수립에 배후마을 주민 참여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견학, 현장포럼, 계획요소 도출 등에 배후마을 주민 참여 ·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고려한 공간구조 설정(compact-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한 후 배후마을로 연계되는 점선면 확대 전략 설정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Jeonbuk Institute

-
1. 결론
 2. 정책제언

1. 결론

- 정부는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농촌중심지 정책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중심지 기능 강화와 더불어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를 목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중임
 - 2018년 말 기준 총 377개소의 사업이 추진중이며, 이중 배후마을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선도·통합 지구는 66개소임. 전북은 총 55개소가 추진중이며 선도·통합 지구는 9개소임
- 2019년부터 추진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기존 3계층 체계를 일원화하고 총 사업비 한도 확대 및 배후마을 연계 서비스 의무화 등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주요 목적은 중심지 기능 강화와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는 미흡한 실정임
- 전라북도 55개 지구를 대상으로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와 관련된 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문화 및 의료 서비스 전달, 배후마을 경관 조성, 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의 차량 지원 등임
 - 문화부문은 음악회, 공연, 교육 등을 중심으로 배후마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며, 의료 부문은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매검사, 건강검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경관 부문은 배후마을 내 위치한 우물복원, 숲길 조성 등의 예산 배분형태가 많고, 교통 부문은 농촌형 수요대응 택시, 셔틀버스 운행 등을 추진 중
-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의 문제점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나타나는데, 배후마을의 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한 배후마을의 이해 부족 및 참여 미흡,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 취약, 중심지 프로그램의 전달체계의 한계, 배후마을 주민들의 문화활동 공간 부족 및 프로그램 인지도 미흡,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서비스 정보 격차 등임

-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주요 분야별 연계 방안을 농업, 문화·관광·체육, 교통, 의료·복지, 경관·생태, 휴먼웨어·공동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농업분야는 사회적농업시스템 구축, 배후마을과 연계한 6차산업화 육성, 고향장터 운영, 공동작업공간 조성, 커뮤니티 스쿨가든 조성 등임
 - 사회적농업시스템 구축: 토지확보가 용이한 배후마을을 중심으로 기획생산 체제를 도입하고, 중심지는 배후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을 담당하는 시스템
 - 배후마을과 연계한 6차산업화 육성: 중심지의 가공 및 유통과 연계하여 배후마을을 중심으로 농업의 생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육 상품 개발운영
 - 고향장터 운영: 배후마을 주민들이 도시의 자녀들에게 보내고 남은 우수 농산물을 모아 중심지에서 판매, 농산물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향후 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으로 확대
 - 공동작업공간 조성: 노인 비율이 높은 배후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이 농한기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작목반 모임을 운영하고, 공동작업장 등의 생산·가공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한기에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커뮤니티 스쿨가든: 학생들이 텃밭정원에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재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촉진시키고, 중심지와 배후마을 학교가 공동으로 텃밭 발표회를 개최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기존 유통망을 통해 특선판매하여 지역간·세대간 커뮤니티 활성화
-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배후마을 거점시설 활용, 동호회 강사 양성 및 파견, 중심지 내 공공기관을 활용, 지역 내 자원 활용도 제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배후마을 연계 강화 등임
 - 배후마을 거점시설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전달: 배후마을 거점마을 내 유희시설 또는 주요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서비스를 공급받는 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중심지에서는 배후마을 거점시설을 방문하여 문화서비스를 제공
 - 동호회 강사 양성 및 파견: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배후마을을 방문하여 문화서비스 제공시 주민 강사를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중심지 내 공공기관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제공: 중심지 내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도서관 등과 협약을 통해 배후마을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공간을 조성
- 지역 내 자원 활용도 제고: 배후마을 주민들이 중심지를 많이 찾는 5일장에 맞추어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심지에 조성된 야외 체육시설은 막구조 지붕 등을 설치하여 시설이용의 활용도 제고
- 관광자원을 활용한 배후마을 연계 강화: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 생태환경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시켜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광프로그램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 중심지와 배후마을과의 연계성 강화
- 교통 분야의 연계사업은 중심지 내 주요기관 차량을 활용한 이동편의 제고, 배후마을과 중심지의 보행동선 개선 등임
 - 주요기관 차량을 활용한 이동편의 제고: 지역사회 단체와 협약을 통해 배후마을 주민들이 중심지의 문화교육의료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시 차량 지원, 중심지에서 5일장이 열리는 날을 중심으로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 이동하는 행복택시 등을 운영
 - 시군 자원봉사센터 차량 활용 :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유한 차량을 활용하여 중심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전달하는데 활용
 - 배후마을과 중심지의 보행동선 개선 :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단절된 보행동선을 연계시키고 선형과 노면 불량으로 안전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구간의 개선
- 의료·복지 분야는 통합거점 경로당 운영, 배후마을 행복버스 운영, 단종복지관의 기능 전환, 의료·복지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제고 등임
 - 통합거점 경로당 운영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배후마을 중 기타 배후마을들에서 접근성이 양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갖춘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통해 통합거점 경로당으로 조성하고, 중심지에서 배후마을로 개별적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통합경로당을 중심으로 의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
 - 배후마을 행복버스 운영: 지역 내 의료·복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봉사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의료, 문화, 예술, 법률 등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배후마을에 제공

- 중심지 내 단종복지관의 기능 전환: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단종복지관을 복합복지관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많은 계층의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전환
- 의료·복지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제고: 중심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복지 서비스와 중심지에서 배후마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작하여 배후마을에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와 연계한 ICT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상의 프로그램 및 시설의 정보 제공과 예약서비스 제공
- 경관·생태 분야의 연계사업은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진입공간 경관 특화,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수변·산림 자원 연계 등임
 -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진입공간 경관 특화: 진입공간의 불법 적치물 및 쓰레기 등으로 인한 불량경관을 정비하고, 생태 쉼터 등의 휴게편의 시설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 및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심미적 접근성 제고
 -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수변·산림 자원 연계: 선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하천 제방 주변의 공간에 화초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단체 및 공동체 등에게 분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심지 내에 위치한 자연공원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숲길을 활용하여 배후마을로 순환될 수 있는 연계 산책로를 조성하여 상징경관, 테마경관, 생태경관 창출
- 휴먼웨어·공동체 분야는 배후마을 재능보유자 조사 및 활용, 중심지와 배후마을이 함께하는 월장(月場) 개최, 재능나눔 공동체 활동 지원, 지역 활동가 조직화 및 사업지원 등임
 - 배후마을 재능보유자 조사 및 활용: 배후마을 주민 중 문화예술, 공예, 건축, 조경 등의 분야에 재능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조사하여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 중심지와 배후마을이 함께하는 월장(月場) 개최: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서, 의류, 가구, 공예품, 식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임시공간을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마을 내 기술 보유자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 운영
 - 재능나눔 공동체 활동 지원: 지역 내에서 강사를 모집하여 재능나눔 공동체를 구성하고, 직접 배후마을을 찾아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지역 활동가 조직화 및 사업지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발굴하여 액션 그룹(action group)으로 조직화하고,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획하여 지역의 공동체 역량 강화
- 배후마을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추진 단계별 고려도 중요하며, 추진 단계별 방안은 추진위원회 구성, 신규사업 선정, 계획수립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배후마을 주민의 추진위원회 참여 의무화가 필요함. 배후마을 주민에 대한 사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중심지 기능 강화와 더불어 배후마을로의 원활한 서비스 전달로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모두가 서비스를 공급받아 지역 내 서비스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신규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예비계획서 작성을 통한 신규사업성 검토 지표에서 배후마을과 관련된 항목의 강화가 필요함. 배후마을 연계와 관련된 구체성을 검토하고, 5개 부문 중 역량강화 및 추진체계에서도 배후마을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예비계획 수립 시 지역의 여건분석 과정에서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 배후마을의 생활권, 배후마을 내 분포하고 있는 자원과 시설, 배후마을의 인적역량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특히 배후마을 내 다양한 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과 인적자원에 대해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상호성 높은 연계를 기대할 수 있음
 - 기본계획 수립시 실시하는 수요조사는 표본설계 단계부터 배후마을 주민수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조사결과 분석시에는 배후마을 주민들의 수요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현장견학, 현장포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시 배후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 계획수립시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고려한 공간구조 설정을 통해 단계별로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한 후 배후마을로 연계되는 점선면 확대 전략 설정이 이루어져야 함. 기존 중심지의 시설과 기능 집적을 통한 중심지점 기능 강화 및 배후마을의 중간 거점 또는 활동거점을 조성하고, 중심지와 배후마을 거점을 연결하는 고차 서비스의 프로그램 강화 후 배후마을 기초 서비스 거점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2. 정책제언

□ 퍼실리테이터와 사무장의 배후마을에 대한 인식 교육 확대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간단계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중요하며, 특히 주민교육을 담당하는 퍼실리테이터와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사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변화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마을자원 찾기, 갈등 관리, 주민간 소통 등 일반 마을사업 추진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사무장 또한 중심지 기능 강화와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맞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 5년간의 사업이 종료된 후 자립화를 위해서는 추가 사업 등 2단계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사무장의 역할이 중요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교육을 기존의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획지원단, PM단 등에서 퍼실리테이터와 사무장까지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내용면에서도 사업의 추진목적, 계획수립 단계별 고려사항 외에도 중심지와 배후마을과의 연계 필요성, 주요 사례 등으로 세분화시키고,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 시설 집적화를 위한 토지확보 배점 축소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추진시 토지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정시 평가 지표 중 토지확보에 대한 가점 비율을 높게 산정함

- 예전의 토지사용 동의서 또는 승낙서 등으로 가능했던 서류가 현재는 토지매입 확인서 수준으로 강화됨
- 시설물 건립을 위한 토지 확보 여부가 강화되어 시설물이 분산 배치됨에 따라 접근성 및 운영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토지 확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으로 안정적 사업추진이 어렵더라도 사업지구의 양적 확대보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공모델 창출이 더욱 중요한 과제임
-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중심지의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확보에 대한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음

□ 배후마을 연계에 대한 지역역량강화의 선택과 집중

-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대부분 교육 및 견학, 홍보·마케팅, 정보화 구축, 컨설팅, 운영지원 등으로 사업지구는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함
- 특히 교육 및 견학, 컨설팅은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획되는 경우가 있으며, 홍보·마케팅과 정보화 구축은 총 사업비에 맞추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
- 사업대상지에서 추진하는 일반적인 내용(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스트레스 해소 등)은 축소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중심지의 서비스를 배후마을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역량강화 사업으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함

□ 지원한도에 대한 추가 사업 내역 변경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2019년부터 통합지구로 변경되어 사업이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150억 원 이내 규모로 시작하고, 군청소재 읍, 타 중심지 연계시 30억 원,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시 10억 원 등의 추가 사업비 확보가 가능함
- 그러나 일반 시군에서는 150억 원 규모의 사업도 작은 규모가 아닐 뿐더러 특히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40억 원 이내로 추진되기 때문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보다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음
- 그리고 지역개발 전담부서는 관련 부서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10억 원 추가 예산 또한 지역개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동기부여로서는 미흡함
- 따라서 지원한도에 대한 추가사업은 중심지 서비스의 배후마을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후마을 연계사업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현재 배후마을 연계 프로그램으로 사업비 10%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배후마을 내 작은 거점을 조성하거나 배후마을 연계 확대시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완료 지구의 성과 분석 후 2단계 배후마을 연계 정책 도입

- 인구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 특히 배후마을의 경우 시설물 건립은 경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심지의 서비스 기능을 배후마을로 전달하는 정책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임
- 2018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66개의 선도-통합 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지구는 사업추진이 2018년 완료됨
- 대부분의 사업이 중심지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당초 목표로 설정한 중심지 기능 강화와 배후마을 연계 중에서 중심지 기능 강화

는 일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연계는 추진 성과가 미흡한 실정임

- 완료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역량, 배후마을과의 연계 가능성 등 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우수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배후마을과 연계를 강화하는 2단계 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계획협약제도와 연계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 농촌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사업들의 경우 사업 종료에 따른 시설물 운영관리 문제, 주민들의 참여 동기 저하 등 지속성과 관련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음
- 현 정부에서는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도입되었던 계획계약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기반으로 중심지와 배후마을이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타 부처 사업들을 추가로 기획하여 시설물 및 프로그램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시군의 사업 추진단계에 따른 자료 공유 및 컨설팅

- 전북 내 21개 읍면이 신규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예비계획단계부터 사업신청, 기본계획수립, 역량강화,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컨설팅 필요
- 예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 제고 및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
- 사업선정 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해당 시군과 인구규모 및 구조, 생활여건 등이 유사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사업 전체 과정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 지원

-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은 배후마을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관련 우수사례의 충분한 검토 필요
- 역량강화 단계에서는 사업 종료 후 시설물의 관리와 과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리더 양성과 공동체 조직에 집중 지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타 부처 연계사업 도입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업은 중심지에 입지하는 문화 및 복지시설이며, 기타 사업은 지역경관 개선, 역량강화 사업 등임
- 본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문화복지 등의 기능에 대한 주민 수요는 일정부분 충족되나 시설물과 병행해서 운영할 프로그램은 미흡한 편이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또한 사업 종료후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부처 사업을 연계하는 전략이 중요함

〈표 6-1〉 타 부처 연계사업(예시)

부처	사업명
농식품부	행복꾸러미 사업, 깨끗한 농업농촌 만들기 캠페인,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농업인교육지원, 농촌복지증진, 6차산업활성화, 도시농업활성화, 농업농촌 사회적기치 확산지원,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농촌형교통모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문화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마을미술 프로젝트, 생활밀착형 동네체육관 건립, 관광두레 조성, 거점형·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지역문화 창작공간 및 콘텐츠 확충, 지역문화예술 인력 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방방곡곡문화공감
행안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 농어촌도로정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마을기업 육성
국토부	주차환경 개선지원, 공용주차장 조성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중교통체계구축 지원, 지방하천 정비
고용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기관 운영, 고령자 고용촉진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중기부 외	전통시장시설현대화, 특화시장육성, 소상공인 특화지원, 청년상인 육성, 청년창업사관학교
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만 및 의료취약지역 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자활사업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여가부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문학 진흥

참고문헌

참고문헌

- 홍영기(1977), 소도읍의 실태와 발전방향, 도시문제 12(5)
- 최양부·정철모(1984), 농촌지역 종합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지역의 정주체제와 중심지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인 등(1986), 현대인문지리학, 법문사
- 이정환 등(1989), 정주체제에 따른 농촌중심지 기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훈(2000), 농촌중심도시의 중심성지수와 정주생활권 체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연·한수경(2004), 길 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하나, 국토연구원
- 송미령 외(2008), 시군 기초생활권 정책 발전방안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연(2014),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 추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노세희(2018), 인구감소시대의 농촌중심지 기능변화와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승현 외(2018), 전라북도 과소화정책지도 연구
-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ise.go.kr)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국가균형발전위원회(www.balance.go.kr)
- 농지공간포털(njl.mafra.go.kr)

정책연구 2019-2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발행인 | 김 선 기

발행일 | 2019년 7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72-1935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